

코스피 2588.97 (+46.61)	코스닥 754.08 (+25.03)
금리 (연이자율) 2.935 (-0.004)	환율 (원/달러) 1373.55 (-5.85)

배추 135%, 오징어 33%, 굴가격 105% 급등 장바구니 담기 무섭다 10분기째 꺾달린 지갑

W 경제의 뒷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한달 여가 지났지만 금리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사람은 드물다. 정작 우리가 먹고 사는 밥상물가부터 시작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 등 기업실적이 둔화하면서 소비도 줄고 있다. 민간 소비 회복이 더디지는 이유를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上> 소비부진

기준금리 인하에도 체감 어려워 밥상 물가, 여전히 높은 부담에 소매판매액 2년3개월 연속 감소 준내구재판매도 6분기째 하락

#. 서울시 혼자사는 김모(32)씨는 점심은 회사근처에서, 저녁은 집에서 해결한다. 점심시간 김모 씨는 동료들과 서울 한남동에서 저렴하다고 손꼽히는 식당에 줄을 선다. 밥값은 1만3000~1만6000원, 커피까지 마시면 2만원이다. 퇴근 길, 김모 씨는 배달 앱을 한참 들여다보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도시락을 산다. 김모 씨는 "최대한 줄여도 하루 2만원은 넘게 든다"며 "배달음식은 (가격이) 부담돼 안킨지 오래고, 집에서 해먹는 것도 비싸 편의점 도시락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4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100.7로 1년 전과 비교해 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0.2%) 꺾이기 시작한 10분기 연속 하락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오랫동안 감소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자들이 마트, 백화점, 자동차 판매점, 편의점 등에서 얼마나 많이 지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2020년 판매액(100)을 기준으로 한다. 10분기, 약 2년 3개월 동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설명이다.

◆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밥상물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물가가 자리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 높다. 물가가 상승해 본격적으로 기준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배추가 판매되고 있다. /뉴스1

금리를 올리던 2021년 8월(108.63)과 비교하면 5.5% 오른 것으로, 2010년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4%, 3년 4.2%)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밥상물가다. 소비자물가지수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수는 9월 124.72로 2021년 8월(106.2)과 비교해 17.4% 올랐다. 전체 물가수준에 비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격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식으로 먹는 쌀가격은 2021년 8월보다 11.6% 내린 반면 빵 가격은 22.3% 올랐다.

닭고기는 같은 기간 18.2%, 오징어는 32.7% 상승했다. 닭 한마리 가격이 8000원에서 9500원으로, 만원에 오징어 3마리였던 것이 오징어 2마리로 줄어든 것이다.

‘금사과’, ‘금배추’라고 불리는 이유도 있었다. 과일과 채소 및 해조 가격은 같은 기간 각각 27.9%, 45.8% 올랐다.

한때 금사과로 불리었던 사과가격은 2021년 8월과 비교해 올해 7월 64.2%나 올랐다가 9월 33.4% 떨어졌다. 굴 가격은 같은 기간 104.8% 올랐다. 굴 한 상자에 1만5000원하던 것이 3만원으로 올랐다.

배추가격은 같은 기간 134.5% 상승했다. 이전에는 1만원에 배추 3포기씩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1포기 밖에 구매할 수 없다.

◆ **"50% 세일도 지갑열기 겁나"**
소비자들은 옷도 구매하지 않았다. 소매판매액지수 중 의류판매액 지수가 포함된 준내구재는 3분기 기준 4.7% 감소해 6분기 연속 하락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투세 폐지 동의... 상법 개정도 추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가 하락 주 원인은 정부정책 주가조작·지배권 남용 등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며,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이 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고 다 정부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대주주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선, 이 대표는 “주가조작이 만연하다.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한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았으니, 전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

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고 꼬집었다.

또 ‘우량주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썩다 빼먹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경제산업 정책 실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금투세 폐지’ 기대감에 코스피 들쭉

코스피가 전 거래일(2582.96)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장을 마감한 4일 이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29.05)보다 25.03포인트(3.43%) 급등한 754.08에 마감했다. /뉴스1

내년 예산안 677조 ... 약자복지 중점 지원

11년 만에 총리 대독 시정연설
건전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강조 지지율·김여사 특검법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밝힌 677조원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의 4대 분야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의 당위성, 민생 예산 등 설명이 주로 담겼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이라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첫 키워드인 ‘약자복지 확대’에 대해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인가구 생계급여액 상향(12만원 ↑) ▲양육비 국가 선제급여 도입 ▲공공주택 공급(25만2000호) ▲국가장학금 지원자 150만명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의료·연금개혁 반드시 완수” 의지 보였지만... 현실은 안갯속
▲민주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여론 전 총공세 /사진 뉴스1

▲與 중진 “당·대통령실 변화 필요...단합해야”
▲유엔 사무총장 “파병 온 북한군 러시아 주둔 매우 우려”



▲한동훈 “윤 사과·김 여사 활동 중단... 참모진 개편·개각 단행해야” /사진 뉴스1
▲‘딤페이커 컨트롤타워’ 여가부장관 8개월째 공석... 임명 건의도 없어

“젠슨황, HBM4 공급 6개월 당겨달라 요청… 협업으로 해결”

〈엔비디아 CEO〉

최태원 회장, SK AI서밋 연설

“황CEO, 뺏속까지 엔지니어인데 한국인 같이 일정 앞당기길 위해”

“엔비디아·TSMC·MS 등과 협업 기술혁신, 리스크 해결 돌파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공급을 6개월 앞당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과노정 SK하이닉스 사장에 물었더니 ‘한 번 해보겠다’ 하더군요. 엔비디아, TSMC와의 신뢰와 공고한 협력이 바탕이 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4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앞당겨달라 요청했다”며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로소프트 등 파트너 기업들과의 협업이 기술 혁신과 리스크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최 회장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황 CEO와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황 CEO는 뺏속까지 엔지니어인데 마치 한국인 같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며 “빨리빨리 일정을 앞당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AI 기술의 급속한 성장과 산업계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들을 언급했다.

그는 “AI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병목현상(Bottleneck)이 존재한다”며, ▲투자 회수를 위한 ‘대표 사용 사례’(Killer Use Case)와 수익 모델의 부재 ▲AI 가속기 및 반도체 공급 부족 ▲첨단 제조 공정 설비(Capacity) 부족 ▲AI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 문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문제 등 5가지 병목현상을 꼽았다.

최 회장은 “SK는 반도체, 에너지,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서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한 전 세계적으로 드문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와 파트너들의 다양한 솔루션을 묶어 AI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더 나은 AI가 우리 생활에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글로벌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웨이저자 TSMC CEO가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SK하이닉스

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 CEO는 데이비드 패터슨 UC버클리대 교수와의 영상 대담에서 SK와의 파트너십과 HBM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SK하이닉스와의 협력으로 적은 메모리를 통해 정밀하고 구조화된 연산을 가능하게 해,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는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며 “우리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HBM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BM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중인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GPU 시장 규모는 197억 1166만 달러였으나, 2028년에는 334

억 6393만 달러로 연평균 7.85% 성장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53%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을 크게 앞서고 있다.

웨이저자 TSMC CEO도 SK AI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AI 생태계 전반에서 긴밀하고 견고한 협력을 통해 AI의 미래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이며 SK하이닉스와 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좋은 집을 설계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제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SK는 엔비디아와 함께 TSMC와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 AI 칩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 AI 서밋’은 AI 분야 민간, 정부, 학계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 및 AI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AI 생태계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SK는 미래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포트폴리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오늘 美 대선’ 초접전… 경합주 7곳이 ‘운명’ 가른다

2024 미국의 선택

선거인단 538명 과반 확보면 당선 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 등 경합주

해리스 ‘블루월’ 가져갈 가능성 커 트럼프, 일조량 많은 ‘선벨트’ 우위 ‘대선의 키’ 펜실베이니아 안겟속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대선 당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50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통령 당선이다.

현재까지 어느 후보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경합주 7곳의 결과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경합주 7곳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이다. 이 중 선거인단 19명이 걸려 있는 펜실베이니아가 이번 대선의 키를 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대선은 특정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다. 경합주로 보면 해리스 후보는 ‘블



루월’(Blue Wall·파란 장벽)이라 불리는 펜실베이니아(19명), 미시간(15명), 위스콘신(10명)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일조량이 많은 ‘선벨트’(Sun Belt)에 속한 남부의 조지아(16명)와 노스캐롤라이나(16명), 서부의 애리조나(11명)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해리스 후보로서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북부 3개 주를 모두 가져가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블루월’로 불리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에는 상황이 달랐다.

트럼프 후보는 예상대로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가져가고, 블루월 중 가장 취약한 펜실베이니아를 공략해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7개 경합주 중 흑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 트럼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흑인 유권자를 겨냥해왔다.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여전히 안겟속이다. 펜실베이니아는 두 후보가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금과 시간을 집중해왔다.

두 후보는 대선 전날인 4일에도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마지막 유세 대결을 벌였다.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이어 주(州)내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콘서트를 겸한 유세로 표심을 공략하고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필라델피아 유세에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도 합류해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펜실베이니아 레딩과 피츠버그에서 유세를 벌이며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합주에서 예상을 뒤엎고 어느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라 관측도 있다. 두 후보의 지지를 격차가 7곳 모두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다. 경우에 따라 한 후보가 7곳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원승일 기자 won@

>> 1면 ‘장비구니 담기 무섭다…’서 계속

유아동복 값 20% ↑ 아동화는 16% 상승

비대면 생활을 확대시켰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단계로 떨어지며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높고 있다. 특히 유아동복과 아동화는 2021년 8월과 비교해 14.8% 상승했다. 5만원하던 유아동복이 5만7000원으로 오른 셈이다. 남자의류는 15.3%, 여자의류는 12.2% 상승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옷값 부담이 더 컸다. 유아동복은 2021년 8월 98.61에서 118.19로 19.9% 올랐다. 아동화는 같은 기간 16.2% 상승했다. 총 의류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그 외에도 장갑은 2021년 8월 100.28에서 9월 147.55로 47.1%, 실내화는 같은 기간 23.4% 올랐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의식주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식료·의류 가격이 OECD 평균 가격으로 낮아진다면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적으로 약 7%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제약·바이오업계, 'ADC' 역량 집중... 치료제 확보 속도낸다

〈항체·약물접합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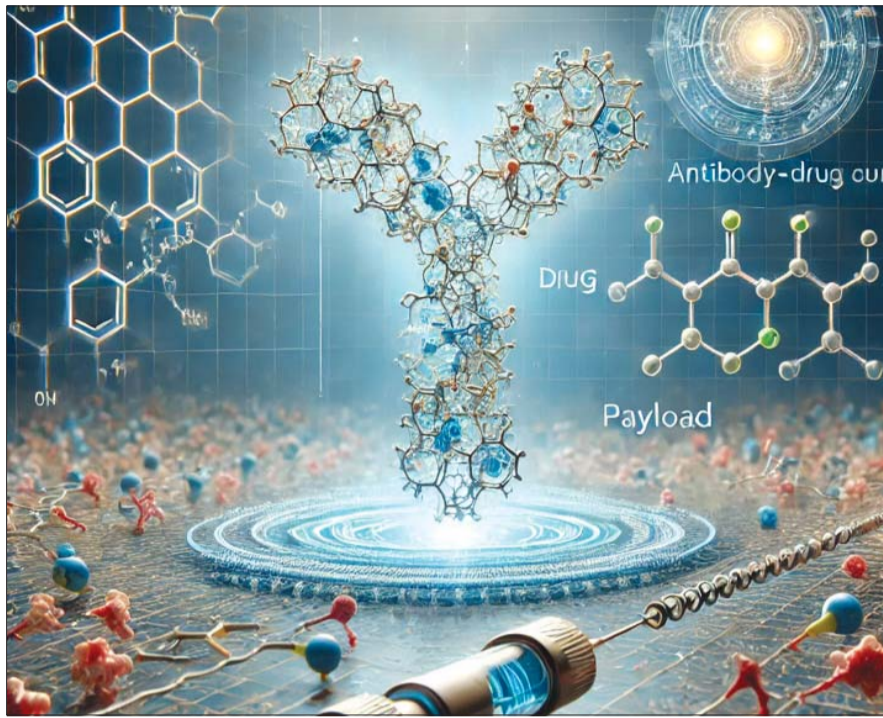
링커 특화 등 ADC 치료제 시장 도전
응용 가능성 무한... 기업 협업 활발
시장 선점 위한 가시적 성과 주목

항암제 분야에서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는 '항체·약물접합체(ADC)'는 암 세포를 특이적으로 표적하는 '항체'와 합성 약물 '페이로드', 이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링커' 등 3가지를 결합한 새로운 물질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ADC는 없지만,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ADC 연구개발에 적극 역량을 쏟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ADC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다양한 항체를 활용해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거나 ADC 중 링커 특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ADC 치료제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 '콘주올'을 앞세워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가 구축한 ADC 파이프라인은 총 17개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ADC 치료제 후보 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가



챗GPT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캠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0월에도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두 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해당 계약은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LCB97을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 권리에 관한 것으로, 계약 규모는 약 9435억원 수준이다. 또 두 회사는 다중 표적에 중점을 둔 ADC를 공동연구하는 계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이 경우에도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의 ADC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수출 성과는 ADC 치료제 상업화도 함께 예고하고 있다.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LCB14, LCB71, LCB84 등은 현재 글로벌 임상 단계에 진입하는 등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ADC 치료제 개발이 활

발해지면서 ADC 구성요소가운데 항체 개발 분야 기업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와이바이오로직스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으로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지속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와이바이오로직스는 국내 ADC 개발 선두 주자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와 ADC 항암제 후보물질인 'YBL-001(LCB67)'을 공동개발해 지난 2020년 미국 픽시스온콜로지에 기술수출한 바 있다. 또 이 회사는 ADC뿐 아니라 세포 이중항체, CAR-T/NK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HK이노엔,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등과 공동개발한 단일 항체 및 이중 항체 신약 후보물질을 중국 화동제약에 기술이전했다. 특히 기술을 이전받은 화동제약은 중국 대표 제약사 중 하나인데 주로 ADC, 면역질환 항체 및 바이오시밀러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통 제약사인 유한양행과 동아쏘시오그룹은 ADC 시장 선점을 위해 맞손을 잡기도 했다.

유한양행과 동아에스티는 이에 앞서 지난해 항체 기술 개발, ADC 사업 등을 본격화하기 위해 각각 프로젠과 엠

티스를 자회사로 인수했다. 이후 유한양행의 프로젠과 동아에스티의 ADC 전문 자회사 엠티스는 지난 4월 '이중항체 기반 ADC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프로젠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항체를 2가지로 만드는 이중항체를 만들고, 엠티스는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링커와 치료제 역할을 하는 페이로드(약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약 업계의 한 관계자는 "ADC라는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는 현재 'ADC 플랫폼'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표현 그대로 의학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라며 "국내외 유망한 기술을 가진 바이오텍 기업들과의 협업이 이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처럼 원천기술을 보유하면 보다 큰 글로벌 회사에 기술을 수출하는 등 수익 창출 모델을 확보할 수도 있고, ADC 치료제 자체를 개발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훌륭하겠지만 우선 ADC를 중심으로 다양해지는 산업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곽노정 "내년 초 48GB HBM3E 16단 양산"

〈SK하이닉스 대표〉

SK AI 서밋 2024

HBM3E 최고층 제품 출시 공식화
"12단 대비 학습능력 18% 향상"

SK하이닉스가 내년 초 업계 최대용량·최고층 '48GB(기가바이트) HBM3E 16단' 제품 양산에 나서며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선도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Summit) 2024'에서 "기술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48GB HBM3E 16단 제품을 개발 중이며 내년 초 고객에 샘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48GB HBM3E 16단은 세계 최대 용량이자 기존 12단을 넘어선 HBM3E 최고층 제품이다. 제품 출시를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곽 사장은 최태원 SK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등 SK그룹 최고경영진과 주요 빅테크, 인공지능(AI) 업계 유력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메모리의 개념 변화를 설명하고, AI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제품을 소개했다.

곽 사장은 "클라우드와 SNS가 대중화되며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으며 특히 챗GPT의 등장을 기점으로 데이터 간 연결성은 AI 시대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현재의 메모리는 '연결된 메모리(Connected Memory)'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창의적 메모리(Creative Memory)' 개념도 설명했다. 창의적 메모리는 SK하이닉스가 내다 보는 미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차세대 AI Memory의 새로운 여정 : 하드웨어를 넘어 일상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래 메모리의 비전이다. 그는 "앞으로 본격화 할 인공지능(AI) 시대는 메모리가 '창의'와 '경험'으로 확장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SK하이닉스는 'World First, Beyond Best, Optimal Innovation' 세 방향성을 미래 발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 곽 사장은 "다중(多重) 협력을 통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Full Stack AI Memory Provider)'를 목표로 지속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3E 12단, 48GB HBM3E 16단 등 전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 중이거나 예정 중인 '월드 퍼스트(World First)' 제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곽 사장은 "16단 제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HBM3E 12단보다 학습 성능은 18%, 추론 성능은 32% 향상됐다"며

"이미 12단에서 양산성이 검증된 어드밴스드 MR-MUF 방식을 계속 적용하고, 백업으로 하이브리드 본딩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HBM3E 8단을 엔비디아(NVIDIA)에 최초로 납품하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HBM3E 12단 제품을 양산에 들어갔다. HBM3E 12단은 4분기 중 출하할 예정이다. HBM3E 16단은 내년 상반기 중, HBM4 12단 제품은 내년 하반기 중 출하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HBM4부터 베이스 다이(Base Die)에 로직 공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베이스 다이는 GPU와 연결된 HBM을 컨트롤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이(Die)로 HBM은 베이스 다이 위 D램 단품 칩인 코어 다이를 쌓아 올린 뒤 TSV 기술로 수직 연결해 만들어진다.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혁신을 또 이뤄내 오는 2028년부터는 HBM5·HBM5E 제품도 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석화업계, 비주력사업 매각... 위기 대응력 강화

글로벌 수요 위축... 3분기 실적 부진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투자 집행 예정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부진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석화 업계는 업황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는 등의 전략을 택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화 기업들이 3분기 암울한 실적을 기록했다. 더욱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가 위축되면서 내년에도 업황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3분기 석유화학 부문에서 38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화솔루션 또한 영업손실 810억원으로 집계됐다. 롯데케미칼 역시 부진이 겹쳐진다.

이에 석화업계는 비주력사업을 매각하거나 가동률을 줄이는 등 사업 구조 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LG화학의 상반기 공장 가동률은 81.8%다. 지난해 동기 76%와 비교해 개선됐으나 지난 2021년 91.9%와 비교해 10%p 가량 낮은 수치다. 롯데케미칼의 상반기 PET 제품의 공장 가동률은 51.3%에 그쳤다.

업황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도 시장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주를 이뤄,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LG화학은 설비투자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LG화학이 제시한 설비투자 규모는 4조원이었으나 연말까지 불확실성을 고려해 2조원 중반 수

준으로 크게 감축돼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을 포함한 중장기 투자계획은 여러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투자 집행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말레이시아 소재 합성 고무 생산 회사인 LUSR를 청산한다. LUSR는 롯데케미칼과 일본 우베가 50대 50 지분 비율로 지난 2012년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회사다. 전략 방향에 따라 LUSR를 비핵심 저수익 사업으로 판단해 운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청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내년 투자 규모에도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내년 투자 규모를 1조 7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는 올해보다 약 40% 축소된 규모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등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중동까지 석유화학 분야에 투자를 진행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 대응력을 꾀하고 있다.

LG화학은 태양광용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등 친환경 스페셜티 개발 및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금호석유화학도 합성고무를 중심으로 한 스페셜티 제품을 통해 시장 우위를 확보할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화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라며 "이를 통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개인·금융업계 ‘환호’... 국내 자금이탈 방지·불확실성 해소

금투세 폐지, 주식시장 구원투수 시장 기대감 속 투자 심리변화 주목 발표 후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외국인·기관 자금 유입, 증시 활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증권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야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4일 이재명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라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와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금투세로 인한 시장불확실성 해소에 환호했다. 특히 업계는 이번 결정이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정부 및 여당과 의견을 맞추자 국내 증시는 즉각 상승장으로 전환했다.



ChatGpt로 생성한 '금투세 폐지로 국내 증시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날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고 상승세를 이어간 끝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46.61(1.83%) 상승한 2588.97를, 코스닥 지수는 25.03(3.43%) 오른 754.08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일일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 8월 2일,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03% 상승한 바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입법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 같다. 폐지 소식 자체가 증시 상승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며 “원안대로라면 내년에 시행될 법이었기에, 연말에 빠져나갈 뻔했던 국내 자금이 국내 시장에 머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전산

시스템에 투자한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남을 것 같긴 하지만, 증시 부양이 더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와 다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할지 모르니 증권업계가 ‘미리 준비해왔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환영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소득 원천과 관계없이 분배금이 배당소득세로

세될 수 있어, 투자자에게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도 금투세 폐지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종목 토론방에서는 “조금 더 일찍 결정했다면 지수가 이 정도로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이제라도 폐지되니 다행”이라는 반응이 공존했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큰 먹구름 하나가 제거됐다”며 “당내 반대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압박에도 대응적으로 폐지를 선택한 이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민주당, 주식시장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개선 법안 준비

>> 1면 '금투세 폐지 동의...'서 계속

금투세 폐지 후 주주총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등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강화로 시장 신뢰 회복 목표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며 “불공정거래 규제도 안하고,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서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면세 한도 1억원 상향 ▲손실이 연 기간 10년 연장 ▲장기 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지만 그런 보완책으로는 증권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할 수 없

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총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금투세 폐

지’를 결정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금투세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말한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 총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韓, 기후대응 안하면 GDP·물가에 ‘부정적’

한은, 기후변화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기후변화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0.3%포인트(p)씩 떨어져 2100년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이 넘게 줄어든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과장과 류기봉 조사역,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황재학 수석조사역과 김현진 선임조사역, 김한나 조사역, 기상청(기후과학국) 이한아·심성보 기상사무관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억제할 경우 ▲2.0°C 이내로 억제할 경우 ▲2030년 이후부터 2°C로 억제할 경우(자연대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무대응)로 시나리오를 분류했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

능연구팀 과장은 “기후변화 리스크는 탄소가격 상승 및 친환경 기술발전(전환리스크)→ 국내의 온도 상승·강수 피해 증가(만성리스크)→ 자연재해 빈도·규모 확대(급성리스크) 등의 경로로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1.5°C 이내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할 경우 2030년에는 탄소가격(톤당) 150달러, 2050년에는 17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화석연료(석탄·천연가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상승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늘고, 설비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연평균 기온은 21세기말(2081~2100년)에 현재(2000~2019년) 대비 6.3°C 상승하고, 강수량은 같은기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과장은 “전환·만성리스크는 우리나라 GDP에 장기간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기후대응에 적극적이고 관련 정책을 조기에 시행할수록 부정적 영향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1.5°C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탄소가격 등으로 205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13.1% 감소하지만,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 및 기후피해 완화 등으로 회복해 2100년경 10.2%로

감소했다. 2.0°C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2050년경 시나리오 대비 6.3% 줄고, 2100년경에는 15%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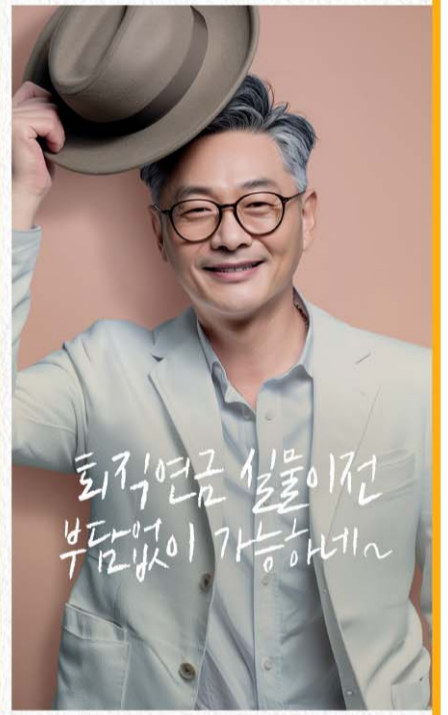
대응하지 않다가 2030년부터 2.0°C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2050년경 시나리오 대비 17.3% 줄고, 2100년에는 19.3% 감소했다. 1.5°C로 대응하지 않는 한 GDP가 2050년 시나리오보다 2100년 시나리오에서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탄소 가격 부담이 줄어 GDP는 2050년 경 1.8% 감소하지만, 2100년경에는 GDP가 21% 대폭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퇴직연금 대이동의 시대, 든든한 당신의 노후 KB국민은행과 함께하세요



퇴직연금이 궁금할 땐 'KB스타연금' 유튜브로 확인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운용센터 (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440호 (2024-10-30~2025-09-30)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215호(2024.10.29.), 광고물 유효기간 2024.10.30.~2025.09.30.까지

당정 지지율 추락... 한동훈 “尹, 사과 비롯한 필요 조치해야”

한동훈 “참모진 전면적 개편·쇄신 김건희 여사 즉시 대외활동 중단해야”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22.4% 기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 정부여당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의혹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뭐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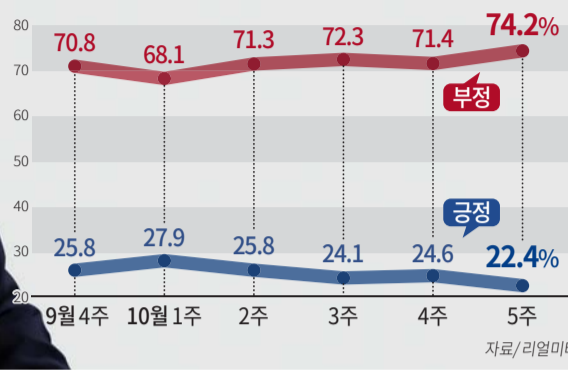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쇠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면서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사진뉴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추이

10월 28일~11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6명 조사
응답률 3.0%(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무선(97%)·유선(3%)



자료/리얼미터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느낀 건, 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쇠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쇠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며 “김 여사는 즉

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며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면서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여당의 큰 위기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우리 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담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4%로 같은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7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29.4%, 더불어민주당이 47.1%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pth285@metroseoul.co.kr

민주당 “11월 ‘김건희 특검의 달’ 삼을 것”

의원총회 열고 정국 대응 전략 논의 오는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예정 1~2차 비상행동 통해 수위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비상행동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길 부탁한다. 이것이 의총의 결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1~2차 비상행동을 갖고 정국에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차 비상행동은 14일 본회의까지 진행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지는 취지”라며 “14일까지 상임위 별로 저녁에 8시~10시 정도 로텐더룸에서 결의를 다지는 등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 28일까지 2차 행동엔 정국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대통령 거취 관련 언급은 없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의 거취는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거기까지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 김건희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데 당력을 쏟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의 정례회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지난 주말은 민주당 단독 집회였다. 그 이후 주말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집회도 있다”며 “각자 윤 대통령 퇴진 요구도 있고 탄핵 요구도 있고 요구하는 수위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 수위에 대해서 단일하게 입장이 모인 상태가 아니라서 당의 집회 참여 여부는 요구 수위 조절이 돼야 가능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 주말 시민사회와 집회에서 결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penAI, Microsoft, NVIDIA, AWS, google cloud 등 글로벌 AI 기업과 SK 등 주요 국내기업, 스타트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AI 산업현장 찾은 李... 민생·경제 행보

SK AI 서밋 참석... 최태원 회장 차담 민주당 ‘글로벌 AI 기업 정책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관계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SUMMIT)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과 차담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이 체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SK의 차세대 AI 메모리 현황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 AI기업 및 주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 방향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이후 열린 민주당 ‘글로벌 AI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AI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김현 과방위 간사, 이해식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크 윌첸스키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비롯해,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SK수펙스) 사장, 염성진 SK수펙스 부사장, 유경상 SK텔레콤 부사장,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안정환 SK텔레콤 부사장,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이성호 씨메스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조수원 투아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제이크 윌첸스키 오픈AI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만나서 반갑다”며 “오늘은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AI 산업 진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 삶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AI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가 세상을 선도하고 길을 열어야 하는데, 요즘은 현장을 따라가기도 바쁘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이해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尹 시정연설 불참에 野 “강력한 유감”

>> 1면 ‘내년 예산안 677조...’서 계속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도 확충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배달비 30만원 지원,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 지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 기금’을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언급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최대 29조7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한 저리대출(4조3000억원)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확충 ▲원전산업 성장펀드·K-방산 수출펀드 조성 등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급급 아이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2억5000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에너지로 채우다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모든 곳이
우리의 에너지로 채워질 때까지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 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SK 엔텀

‘천정부지’ 車보험 손해율… 안전운전고객 할인으로 대응

자동차보험 손해율 지속 상승
대형보험사 4곳 손익악화 전망
9월 평균 손해율 86.6% 기록
안전운전 고객 확보 전략 추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멈추지 않고 지속 상승하고 있다. 하반기 계절적 요인 등 악화 여력이 남아있어 손해보험사들의 차보험 손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1~8월 누적손해율은 평균 81.1%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2% 대비 2.9%포인트(p) 악화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 80.9%, 현대해상 81.1%, KB손해보험 81.3%, DB손해보험 80.3% 등으로 집계됐다.



첫 지피티가 생성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이미지. /첫 지피티

지난 9월만 보면 삼성화재 86.5%, 현대해상 86.3%, KB손해보험 86%, DB손해보험 87.5% 등 평균 손해율은 86.6%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82% 대비 4.6%p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손해보험업

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80% 이하로 본다.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손보업계의 대표적인 적자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손보사의 차보험손익은 코로나19에 따른 사고율 감소 영향으로 적자를 극복하고 흑자 전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지난 2019년 1조6445억원 적

자에서 2020년 3799억원 적자로 개선된 후 2021년 3981억원 흑자를 기록해 4년 만에 흑자 전환한 바 있다. 지난해 차보험손익은 5539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올해 차보험료 인하 영향 등으로 차보험 흑자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 사업성이 악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차보험손익은 3322억원으로 흑자 규모를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보다 40.2% 감소했다.

손해율 상승과 차보험손익 감소에 대해 손보업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전체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덩치가 큰 편이므로 보험사의 손익 측면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차보험손익에 대해 민감하고 예민한 수준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은

덩치가 커 가입한 개인에게는 영향이 적을지 몰라도 보험사의 손익 측면에서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손보사는 우량물건 중심의 취급 방식을 채택해 위기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첨단안전장치 도입 및 보험료 할인 전략 등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우수 고객을 선점하겠다는 판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고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사고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보험사는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첨단안전장치와 보험료 할인 방안 등을 따져보면 결국 모든 보험사들은 우량물건 위주로 취급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가 안 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많이 할인해서 우수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가상자산위원회 내일 출범… 현물 ETF·법인투자 기대

금융위원회, 6일 첫 회의 개최
법인 가상자산계좌 허용안 등
시장 보호·육성 정책 논의 예고

가상자산에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던 금융당국이 오는 6일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2단계 입법 여부 등이 시장의 관심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한다. 당초 지난달 출범 예정이 었지만 민간 위원 인선 작업이 지체되면서 출범도 지연됐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위 산하 정책 자문기구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장이 맡고, 금융위를 포함해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시스

부 측 인사 6명과 민간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가상자산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가상자산시장 보호 및 육성 정책 ▲규제 영역 등을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금융당국이 밝혔기 때문이다.

먼저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국회 및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 가상

자산 거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인 투자를 통해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고객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거래소에 대규모 자본이 고루 투입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과제인 독과점 현상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 인증을 마친 개인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 승인 여부도 가상자산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미국 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지난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현물 ETF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

F가 막혀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현물 ETF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의를 통해 법인 투자와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 될 시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 역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만큼 ‘2단계 입법’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 단계에는 가상자산 발행이나 상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인 투자를 허용하게 되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위가 빠른 결단력을 통해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이달 3.9만가구 분양 전년 동월비 97% ↑

수도권 2.1만가구, 지방 1.8만가구
서울원 아이파크 등 대단지 주목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9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1만9881가구) 대비 97%가량 많은 물량이다.

4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총 가구수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단지·사전예약 등 제외)은 49개 단지, 총 3만9240가구로 조사됐다. 전월(2만191가구)과 비교하면 약 19%(18809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904가구, 지방은 1만83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의 53%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3822가구로 분양 예정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서울 4331가구 ▲인천 2751가구 순이었다.

서울에서 분양되는 단지는로는 강북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총 1856세대 규모의 서울원아이파크가 11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안양시 동안구, 평택시, 의왕시 등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많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퍼스니티 2737세대,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 991세대 등이 분양 준비 중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가구 ▲대전 2946가구 ▲전북 2425가구 ▲울산 2153가구 ▲부산 1570가구 ▲대구 1093가구 ▲충북 1021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

직방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18.3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140.1대 1)이었다.

/전지원 기자 jiw13@

KB국민은행 청소년 고객 전용 KB스타틴즈 오픈

KB국민은행은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에 청소년 고객 전용 서비스인 ‘KB스타틴즈’를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KB스타틴즈는 경제생활에 주체적인 10대 청소년 고객의 행동 패턴을 반영한 금융 플랫폼이다. 은행 방문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청소년 전용 선불지갑인 ‘포켓’을 만들 수 있다.

고객은 포켓을 통해 수수료없이 송금하거나 입금할 수 있으며, KB국민은행의 ATM에서 입출금 거래와 CU편의점에서 충전 거래가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삼성물산, 리모델링 한계 극복 특화평면 18종 선보

고객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반영
‘EX-유닛’ 브랜드화… 현장 적용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18개 타입의 리모델링 특화평면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단조로운 리모델링 평면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평면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증축 부위에 기동식 구조를 적용한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등 새롭게 특화평면 타입들을 선보였다. 현장 적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그대로 남겨

두고 세대 면적을 넓혀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와 같은 평면 구성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삼성물산이 이번에 선보인 특화평면은 기존 대표적인 59㎡·84㎡·114㎡ 3개 평형과 전면·후면·측면 등 증축 방향에 따라 18개에 이르는 평면들을 제시해 고객의 선택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우선 일반적으로 2베이(Bay)로 구성되어 있는 59㎡·84㎡ 타입은 측면 증축을 통해 발코니와 맞닿은 공간의 수

를 의미하는 베이(베이를) 증가시켜 자연채광이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면적 증가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114㎡ 타입은 공간 구성을 개선해 다변화했다. 추가로 리모델링 단계에는 처음으로 적용해 주목을 받았던 래미안대치 하이스턴의 세대분리형(임대수익형) 평면 또한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기존의 골조를 최대한 유지(Existing)하면서도 공간을 다양하게 확장(Extending)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리모델링 특화평면을 ‘EX-유닛(Unit)’으로 브랜드화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SK이노, 배터리사업 흑자 전환 “E&S 합병 시너지 창출 가속화”

3분기 매출 17.6조, 영업손실 4233억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손실 등 영향
“주주환원, 지속 확대해 나갈 것”

SK이노베이션 산하 배터리사업이 수익성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분기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합병법인이 출범함에 따라 향후 재무안정성과 수익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은 2024년 3분기 매출액 17조 6570억원, 영업손실 4233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1조 1422억원, 영업이익은 3775억원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사업에서의 수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관련 손실 및 주요 화학제품의 스프레드 축소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4분기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완화 기대감으로 정제마진이 회복세를 보이고, 배터리사업도 고객사의 북미 공장 가동 및 신차 출시 계획 등으로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SK이노베이션은 SK E&

S와의 합병을 완료했다. 아태지역 민간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한 SK이노베이션은 강화된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해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해, 합병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2027년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및 주주환원율 35% 이상을 달성할 예정이다.

석유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및 중국 석유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유가와 정제마진이 하락해 전 분기 대비 7608억원 감소한 영업손실 6166억원을 기록했다. 화학사업은 2분기 진행된 파라자일렌(PX) 정기보수 종료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품 스프레드 하락에 따른 재고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1138억원 감소한 영업손실 14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유탄사업은 미국, 유럽시장의 판매량 증가와 마진 개선 효과로 전 분기 대비 220억원 증가한 174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석유개발사업은 판매 물량의 소폭 감소와 유가 하락에 따

른 복합판매대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110억원 감소한 13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배터리사업은 3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1227억원 감소한 1조 4308억원을 시현한 가운데, 영업이익 240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10월 SK이노로 독립법인 출범 이후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고단가 재고소진, 헝가리 신규 공장 초기 랩업 비용 감소 등 전 분기 대비 저해 효과와 전사적 원가 절감 활동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2분기 대비 4841억원 개선됐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3분기 AMPC 수혜 금액은 전 분기 대비 510억원 줄어든 608억원을 기록했다. 소재사업은 주요 고객사 판매 물량이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돼 영업손실 740억원을 기록했다.

김진원 SK이노베이션 재무부장은 “SK E&S와의 합병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시너지 창출 가속화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싼타페 하이브리드, 日 경쟁모델 제쳤다

현대차 아우토 자이툰 비교평가 1위

현대자동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유럽 시장에서 일본 기술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거진인 ‘아우토 자이툰’이 실시한 하이브리드 SUV 비교 평가에서 토요타와 닛산, 혼다 등 일본의 하이브리드 경쟁 모델을 따돌리며 경쟁력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토 자이툰은 최근호에 게재한 비교 평가에서 싼타페를 포함해 토요타 라브4, 닛산 엑스트레일, 혼다 CR-V 등 4개 차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교했다. 평가 항목은 ▲차체 ▲주행 편의 ▲파워트레인 ▲역동적 주행 성능 ▲친환경·경제성 등 5가지다.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5가지 평가 항목 중 ▲차체 ▲주행 편의 ▲역동적 주행 성능 등 3개 항목에서 경쟁 모델을 앞서 총점 3005점을 기록했다. 2위인 라브4(2939점)를 66점차로 제쳐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거주성, 트렁크 용량 및 적재 중량, 안전사양, 품질 등을 평가하는 차체 부문에서 730점을 받았다. 이는 2위인 엑스트레일



현대차 싼타페 주행모습.

(658점)보다 72점 높은 점수다.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시트 안락감, 정숙성, 서스펜션, 공조 시스템 등을 평가하는 승차감 부문에서도 723점을 받아 2위 엑스트레일(694점)을 29점차로 따돌렸다.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일본을 대표하는 하이브리드 3개 차종과의 비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성장 중인 유럽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현대차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 분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브랜드가 치열하게 승부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싼타페가 하이브리드 경쟁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로봇·장인, 3000개 항목 점검… 안전주의 빛나

리포

벤츠 헤델핑겐 공장

배터리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 기록
“안전성 인증… 30년까지 정보 확인”

“모든 부품이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30년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 헤델핑겐의 메르세데스-벤츠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만난 프랭크 프록스 팀장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모든 부품의 기록을 남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품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메르세데스-벤츠의 안전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터리 생산공장은 1만6500㎡의 부지에 조성됐으며 48개의 스테이션과 50여개의 협동로봇, 200여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EQS와 EQE의 10개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한다.

이 곳에서는 벤츠의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공장에 들어서자 무인운반로봇(AGV)이 공장 곳곳을 누비며 부품을 운반했으며 각종 센서와 협동로봇이 쉴 새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은 모두 3년 이상 벤츠에서 운영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들도 작업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제품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메르세데스-벤츠 헤델핑겐 배터리 생산 공장



메르세데스-벤츠 헤델핑겐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배터리 팩을 생산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확보하는 품질 보증 공정이 눈길을 끌었다. 배터리가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출고되기 전 누수 테스트와 전기 시험을 포함해 모든 기능을 최종 검사한다. 배터리팩 냉각수나 냉매, 셀 전해질 등의 누출이 있는지 검사하고 작은 나사와 씰링 등 완벽하게 연결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항목만 3000여개에 달한다. 전기차 배터리팩 1개를 생산하는데 4시간 가량 소요된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논란이 된 벤츠 차량의 배터리팩에 적용된 부품의 정보도 이곳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벤츠 관계자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해당 모델의 부품 정보도 이곳에서 보관되어 있었고 화재 사고 이후 조사를 위해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다. 벤츠 본사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벤츠가 전기차 시대 안전성은 물론 배터리 기술 개발부터 생산, 재활용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지난달 21일 개소한 배터리 재활용 공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벤츠 배터리 개발 총괄인 우버 켈러 박사는 “벤츠의 DNA를 담고 있는 벤츠만의 고유 배터리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셀 뿐만 아니라 향후 배터리 팩과 차량쪽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투트가르트(독일)·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SE’ 2차 판매

통신3사 온라인 몰 동시 판매

삼성전자가 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SE)’의 2차 판매를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4일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의 2차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 몰에서도 동시에 판매된다.

앞서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은 278만9600원이라는 높은 출고가에

도 지난 1차 판매에서 10분도 되지 않아 완판됐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온라인 몰에서는 재고 부족으로 판매가 진행되지 않았다.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은 두께와 무게가 각각 10.6mm, 236g으로 역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제품이다. 지난 7월 공개한 ‘갤럭시 Z 폴드6’보다 1.5mm 얇고 3g 가볍다. 또한 2억화소 카메라와 16GB(기가바이트) 메모리를 탑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S펜은 지원하지 않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기아, ‘더 2025 K5’ 출시… 안전·편의성 강화

엔트리 트림 ‘스마트 셀렉션’ 추가

기아가 2025년형 연식변경 모델인 K5를 4일 출시했다.

기아는 ‘더 2025 K5’ 전 트림에 ▲선바이저 LED 조명 ▲글로벌 박스 LED 조명 ▲뒷좌석 발매트 고정 고리 ▲실내 소화기 등을 기본화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프레스티지 트림(2.0 LPI 렌터카 모델 제외)부터는 기존에 선택사양이었던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가죽 및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을 기본으로 적용했다. 또한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 셀렉션’을 새롭게 추가해, 진입가격을 낮췄다.

기아는 장시간 운행이 잦은 영업용 차량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 현재 택시로도 판매되고 있는 2.0 LPI 렌터카 모델의 상품성도 강화했다. 2.0 LPI 렌터



더 2025 K5 전측면

카 모델의 엔트리 트림에는 장시간 운전의 쾌적함을 위해 앞좌석 통풍 시트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고 운전석 파워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이 포함된 콤포트 패키지를 선택 사양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5년형 K5의 판매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은 2766만원부터, 2.0 하이브리드 모델은 3250만원부터 시작된다.

/양성운 기자

SKT, 1000억 투자로 한국형 소버린 구현... AI 3대 강국 도약

유영상 대표, 'AI 서밋' 기조연설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
GPU 클라우드 AI 연산능력 강화
에지 AI 도입으로 저지연·보안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내 지역 거점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형 소버린 AI를 구현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유영상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SK AI Summit 2024)'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유대표는 인프라 기반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AI데이터센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에지AI(Edge AI)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SK 정보통신기술(ICT)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상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ICT 강국 반열에 올랐던 것처럼 인프라에서 출발하는 성공방정식이 AI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를 구축해 대한민국이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차세대 AI의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AI DC 허브' 도약 ... 미국 람다와 협력

먼저 SK텔레콤은 국내 지역 거점에 100MW(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센터(DC)를 시작으로 향후 그 규모를 GW(기가와트)급 이상으로 확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DC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AI DC를 지역 거점에 구축하면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해저케이블을 통한 글로벌 확장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 SK가 보유한 고효율 차세대 반도체와 액침냉각 등 에너지 솔루션, AI 클러스터 운영 역량을 결합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AI DC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상 대표는 "SK가 보유하고 있는 고효율의 차세대 반도체와 액침냉각 등 에너지 솔루션, AI 클러스터 운

영 역량을 결합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AI DC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SK그룹의 역량과 파트너사가 보유한 다양한 솔루션이 결합된 AI DC 테스트베드를 오는 12월 판교에 오픈할 계획이다. 이곳은 엔비디아 최신포와 하이닉스 HBM 등 첨단 AI반도체와 차세대 액체 냉각 솔루션 3종을 비롯 GPU 가상화 솔루션, AI 에너지 최적화 기술 등이 모두 구현된 국내 유일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형 AI DC의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중장기적으로 GW급 AI DC를 통해 ▲5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 유치 ▲55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175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 ▲지역에서의 AI 첨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SK텔레콤은 국내 GPU 공급 부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수

도권에 위치한 가산 데이터센터를 AI DC로 전환해 클라우드 형태로 GPU를 제공하는 GPUaaS를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미국 람다와 협력을 통해 오는 12월 H100 기반의 GPUaaS를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최신 GPU H200을 도입하며 고객사 수요에 맞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국형 소버린 AI' 구현에 1000억 투자

SK텔레콤은 2025년부터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 SK하이닉스의 HBM, SK텔레콤과 파트너사들이 보유한 다양한 AI DC 솔루션을 결합한 '한국형 소버린 AI'를 구현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NPU 팜(Farm)을 구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데이터 주권이 중요한 공공 영역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 및 클라우드 사업자, K-AI 스타트업과 협력해 AI 기술 자립 및 생태계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에 연결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AI DC와 '온디바이스AI'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에지 AI(Edge AI)'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지AI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AI 컴퓨팅을 결합한 인프라다. 대규모 AI DC 대비 저지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온디바이스AI' 대비 대규모 AI 연산이 가능해 기존 AI 인프라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업소

대용량 잉크젯 프린터 누적 판매량 1억대 돌파

세이코 엡손(엡손)이 대용량 잉크젯 프린터의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1억 대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용량 잉크젯 프린터는 필요할 때마다 잉크탱크에 잉크를 보충해 사용하기 때문에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일반 잉크젯 프린터보다 유지비용이 적고 편리하며 폐기물의 양도 적다.

엡손은 2010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첫 대용량 잉크젯 프린터를 출시해 현재는 약 170개국 및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엡손 관계자는 "대용량 잉크젯 프린터는 신중 경제국들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개발됐다"면서 "출시 이후 엡손은 프린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여 잉크젯 프린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대용량 잉크젯 프린터는 가정용 및 사무용 잉크젯 프린터 시장에서 약 45%의 출하량을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효성중공업의 미국 테네시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전경. /효성중공업

한국엔컴퍼니, 글로벌 경쟁력 강화위해 '임원 인사'

인사 핵심 키워드 '프로액티브 리더'
지주사·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

한국엔컴퍼니그룹이 2025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의 시행일은 12월 1일이다.

이번 임원 및 PMI 추진단 인사 핵심 키워드는 프로액티브 리더(Proactive Leader)이다. 프로액티브 리더는 조현범 회장이 주문한 그룹 차원 인재상이다. 조 회장이 주도한 기업 문화 '프로액티브(Proactive) 컬처'와 마찬가지로 능동적·혁신적으로 일하며 미래 하



이수일 부회장 안종선 사장 이상훈 사장 박종호 사장 구분희 부사장

이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우선 한은시스템 PMI(인수 후 통합) 추진단이 발족되며, 추진단장으로 이수일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부회장이 선임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주요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확대, 세계 최초 전기차 전용 풀라인업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 출시 등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판매 확대와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양성문 기자 ysw@

효성중공업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유럽 시장서 품질 신뢰 입지 탄탄

효성중공업이 진입 장벽이 높은 유럽 전력기기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일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Orsted)와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효성중공업은 2027년까지 영국 '혼시4(Hornsea 4)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400kV(킬로볼트) 초고압변압기, 리액터(전력 품질 향상 장치)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혼시 4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영국 북동부 요크셔 해안 인근 지역에 전력량 2.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주를 성공함에 따라 올해 유럽에서만 효성중공업이 수주한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0년 유럽에 진출한 이후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 품질 신뢰를 확보하면서 잇따라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3분기 영업이익 4702억... 고인치 타이어 판매 증가

한국타이어 전년 대비 18.6% 증가
18인치 이상 고인치 비중 44.8%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고성능 신차용(OE) 타이어 판매 확대에 힘입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한국타이어는 4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4702억원으로 전년 동

기 대비 18.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4924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두 분기 연속 4000억원대 영업이익을 이어갔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19.3%로 지난해 3분기 16.9%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 증가한 2조4352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순이익은 28.4% 늘어난

3855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실적 호조는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판매 증가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PC/LT) 매출 내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비중은 44.8%로 전년 동기 대비 1.4%p 상승했다. 지역별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은 중국 66.5%, 한국 58%, 북미

52.8%, 유럽 34.6% 등이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BMW M5, 메르세데스-AMG GT 쿠페 등 고성능 차를 비롯해 글로벌 프리미엄 대상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지속 확대했다. 또 세계 최초로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빠르게 선보이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을 선도해왔다. 아이온은 2022년 출시 이후 16인치부터 22인치까지 총 236개 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문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뽕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출연 김남호 김늘메 김준희 김민주 임재혁 정지환 이서정 이하정 차은진 김민성 서찬양 장이슬 석우성 손슬기 윤환호 김진솔 정다운 최린 김상원 서태이 양승환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윤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쉬워진 '퇴직연금 실물이전'... 증권사, 400兆 머니무브 기대감

미래에셋증권

포트폴리오 구독, RA 서비스 제공
가입자 성향 맞게 상품 매칭 제시

한투증권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 '최초'

삼성증권

운용 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숙련된 상담원 배치 등 편의성 ↑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대규모 자본 이동을 예고하는 역동적인 금융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400조원대 퇴직연금 시장의 '머니무브'가 예고됐다. 특히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은행권에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로의 이동이 기대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가 시행되면서 증권사들이 수혜를 기대하며 연금유치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IRP·DC)계좌를 타 금융사로 이동할 시 현금화, 중도해지 페널티 등의 리스크가 존재해 투자자들이 쉽사리 퇴직연금 거래 금융사를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실물이전제도 시행으로 인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 받은 계좌로 실물 그대로 옮길 수 있다. 은행에서 증권, 증권에서 은행 등 퇴직연금 이사가 손쉬워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금융권 전체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400조8787억원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210조원은 은행이 운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은행(4.87%)보다 증권사(7.11%)가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증권업계는 고수익과 투자 전문서비스를 내세우며 초대형 '머니무브'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태세다.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팀장은 "은행, 보험사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 지연매매 또는 종가매매 등

시차를 둔 방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 반면, 증권사는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라인업 측면에서도 증권사는 대부분의 ETF를 라인업하고 있어 선택할 수 있는 ETF 수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적립금 1위 '미래에셋증권'... 맞춤형 상품 매칭 부각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약 17조5000억원으로 증권사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통합연금포털 기준 올해 3분기 개인형퇴직연금(IRP)·확정기여형(DC)의 1년 가중평균수익률도 적립금 상위 10개사 중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가중평균수익률이란 원리금보장, 비원리금보장 수익률을 가입자들의 적립금에 해당 비중을 곱한 수익률이며 IRP는 9.85%, DC에서는 9.96%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MP(미래에셋 포트폴리오) 구독,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포트폴리오 서비스의 전체 잔고는 9월 말 기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우수한 연금상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적배당상품을 가입자들의 성향에 맞게 매칭해 제시하고 있다"며 "더불어 세무, 노무, 계리 등 영역별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금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담 조직 규모는 263명으로 본사 연금지원조직 175명, 본사 연금영업조직 8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규모다.

◆한국투자증권, 'ETF 적립식 자동투자' 최초 도입

퇴직연금 적립액 14조5000억원(증권사 중 2위)을 기록중인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업권 최초로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를 도입했다. ETF 시장은 올해 150조원을 넘기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선호를 방증했다. 적립식으로 자동 투자할 때,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퇴직연금 운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한국투자증권은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는 정해진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자동 투자하면서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며 유망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업권 최초로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터넷은행 3사와 협업해 간편하게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금투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퇴직연금계좌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AI 일일형 랩 서비스 추천 서비스를 도입해 연금 투자 편의와 수익률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증권, 반년 만에 적립금 30% 불어1 선두 맹추격

삼성증권은 올해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4조1000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말 대비 29.2% 증가했다. 퇴직연금 최초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다이렉트 IRP'를 출시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새로운 방식을 선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입 서류 작성 및 발송이 필요 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 정보 제공 및 약관 등 동의시간 제외)와 '연금 S톡'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현재는 업계 최초로 연금센터에 프라이빗뱅크(PB) 경력 평균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을 배치해 전문화된 연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연금 인력 배치는 연금본부 총괄 아래 '삼성증권 연금센터'를 두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펀드, ETF 등의 상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채권에서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상품 라인업을 구성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향후 금리 인하 전망으로 인해 고금리 채권에 대한 니즈가 강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퇴직연금 모바일 채권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채권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지정학적 리스크 속 '방산 ETF' 주목

한화자산운용, '글로벌방산' ETF 상장
K 방산 ETF, 3분기에도 호실적 유지
미래에셋운용, '美방산TOP10' 출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 속에 '방위 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겨냥해 방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이달 중으로 'PLUS 글로벌 방산'을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 ETF는 미국(50%)과 유럽(50%)의 대표 방산기업 상위 10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구성 종목은 전체 매출 중 방산 산업 관련 매출이 절반 이 넘는 퓨어 플레이(pure play·한가지 사업에 집중하는 상장사) 방산주로만

구성된다.

이미 'PLUS K방산' ETF로 국내 방산 ETF 시장을 선점한 한화자산운용은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글로벌 방산 분야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1월 상장한 'PLUS K방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한화오션, LIG넥스원 등을 담고 있고, 해당 기업들은 3분기에도 호실적을 유지했다.

현재 'PLUS K방산'은 국내 방산 ETF 중에서 가장 큰 순자산 총액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전체 ETF 상품 중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상장 이후 단 한번도 '마이너스' 수익률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끈다.

이에 도전장을 내민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달 글로벌 방산기업들을 주요종목으로 담은 'TIGER 미국방산TOP10'를 상장했다. 국내 기업만 담은 것과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해당 ETF는 미국 방산주 10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록히드마틴(펀드 내 비중 23.1%)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4월에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10월에는 신한자산운용이 연이어 방산 ETF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대형 방산기업의 수는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 운용사들이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방산 ETF 시장을 선점한 한화자산운용을 필두로 다른 운용사들도 방산 ETF 상품에 관심을 두고 관련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탈 컨퍼런스 2024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Korea Value-up ETP 상장세미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투자자 보호되는 시장 만들 것"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실현하고자 밸류업 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 강화 ESG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 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KCMC) 2024'를 열고, 한국 자본시장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케빈 스네이더(Kevin Sneader) 골드만삭스 아태지역 대표, 데니스 리(Dennis Lee) S&P DJI 지수 거버넌스 글로벌 헤드 등이 축사를 맡았으며 주요 기관투자자, 증권사, 정부당국, 상장기업 관계자 약 1000여명이 방문했다.

정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장에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미래 경영목표를 공시하면 투자자가 이를 고려해 투자하도록 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9월에는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약 5110억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12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1종목에 대한 상장 기념식도 이날 진행됐다. 패시브 발행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9곳이며, 액티브 운용사는 타임폴리오, 삼성액티브, 트러스트운용사다. 삼성자산운용은 ETN도 발행한다.

이어 정 이사장은 "오늘은 밸류업 지수 선물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상장될 예정이라 더욱 뜻깊은 날"이라며 "내년 6월에는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를 도입해 국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ESG 공시 활성화 적극 지원 등으로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을 통해 투자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삼성증권 '코리아 밸류업 TR ETN' 상장

운용보수 0% 제비용 차감 없어
만기일 2034년 10월 30일까지

삼성증권은 코리아 밸류업 TR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삼성 코리아 밸류업 TR 상장지수증권(ETN)'을 신규 상장했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상장된 ETN은 한국거래소 상장주 중 시장 대표성, 유동성과 같은 규모 요건 이 외에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선정된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양의 1배수로 추종하고, 구성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상품이다.

삼성증권의 이번 ETN은 운용보수(제비용)가 0%로 제비용 차감 없이 기초지수 변화에 따른 등락이 100% 지표 가치에 반영된다.

펀드가 청산되지 않는 한 만기가 없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삼성증권의 '삼성 코리아 밸류업 TR' ETN은 만기일이 2034년 10월 30일이다.

/원관희 기자 wkh@

중소 10곳 중 9곳 'AI 미적용'... 도입희망 기업 16% 그쳐

중기중앙회, AI 활용의향 조사

적용기업 5.3%, 미적용 94.7%
80.7% “우리사업에 AI 불필요”

“일반 중소기업, AI 이해도 낮아
산업별 AI 활용 강의 제공해야”

인공지능(AI)이 대세인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AI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향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도 10곳 중 2곳에 못미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25일부터 10월23일까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의향 실태 조사’를 실시, 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현재 AI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기업은 5.3%, ‘그렇지 않다’는 94.7%로 각각 집계됐다.

‘적용 기업’은 서비스업이 13%로, 제조업(1.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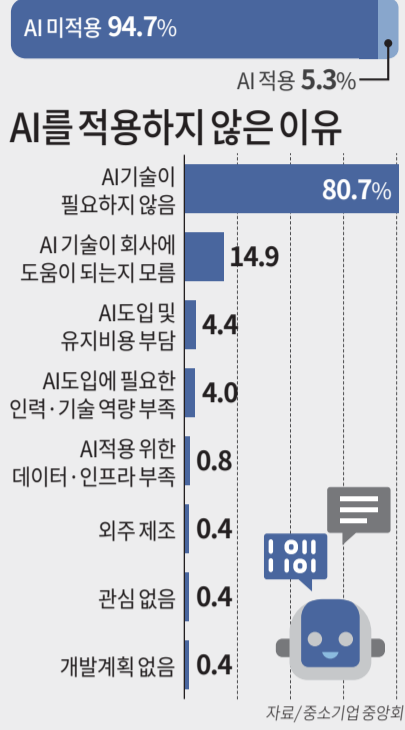
중소기업들이 AI를 적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낮은 필요성’과 ‘활용방법에 대한 인지부족’ 때문이었다.

설문 응답 중소기업 80.7%가 ‘우리 사업에 AI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 경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른다’(14.9%), ‘AI 도입 및 유지 비용이 부담된다’(4.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AI 적용 여부에 대해선 ‘희망하지 않는 기업’이 83.7%로 ‘희망하는 기업’(16.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도 서비스업(28%)이 제조업(10.5%)보다 훨씬 많았다.

AI기술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분야로는 ‘비전시스템으로 결함탐지·불량

중소기업 AI 적용 여부



률 요인분석’(44.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새로운 시장·고객 개척, 마케팅·광고’(37.7%), ‘과거 판매데이터 분석 및 향후 판매예측’(31.3%) 순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선 ‘비전시스템으로 결함탐지·불량률 요인분석’을, 서비스업에서는 ‘새로운 시장·고객 개척, 마케팅·광고 AI 활용’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AI 활용 장애요인으로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응용서비스 부족’(64.0%)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선 ‘투자가능 비용부족’(54.0%), ‘활용가능한 데이터 및 기반 정보의 한계’(43.0%) 순이다.

AI 활용을 위한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입 시 금융 및 세제 혜택’(84.0%), ‘산업 및 기업 규모 맞춤형 성공사례 및 성과 홍보’(66.3%) 등을 기대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부대표는

“일반 중소기업들은 AI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실제로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별로 관련된 AI 활용 강의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일반적인 컨설팅이나 사례 제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시대의 중요한 의제인 AI기술마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AI 리더러시’를 높이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경영지원 업무(CS·예산·마케팅 등)부터 AI를 도입하며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면서, 업종 내 우수사례와 활용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나이지리아 공무원 초청, 투자 노하우 공유

산업부-코트라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등 교육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5일~8일까지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WTO 투자원활화 협정 이행지원을 위한 나이지리아 역량강화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타결된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참여하는 개도국이 협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은 각국이 투자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

록해 글로벌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협정 참여 개도국의 수요를 받고 코트라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카자흐스탄과 모로코의 투자원활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올해는 나이지리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기관인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나이지리아 공무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및 체계, 투자 행정 실무, 인센티브 및 인지도 등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다. 또 한국 최대 투자 홍보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4’를 참관하고 서울시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기관인 인베스트 서울도 방문한다.

김창희 코트라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장은 “이번 나이지리아의 한국 방문은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나이지리아와 적극 공유해 투자원활화 역할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오영주, UAE서 韓 中企 지원 협의체 열어

(중기부 장관)

중진공 운영 GBC 방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열고 중동을 교두보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BIBAN 2024’ 참석에 앞서 두바이를 방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데 이어 현지서 관련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두바이 GBC는 중동의 주요 무역 거점 중 하나인 두바이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문을 열었다. UAE 최대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18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제공, 제품 현지화(인증, 제품개선 등)와 같은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오 장관은 두바이 GBC 방문에 이어 ‘두바이중소벤처기업재외공관 지원 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두바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협의체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두바이 총영사관도 현지 진출기업 및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0개 애로해소 및 44개 정보제공 등 두바이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해결뿐 아니라 현지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

대동그룹, 로봇 기업 ‘대동로보틱스’ 설립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맞손

대동그룹이 농업용 및 산업용 인공지능(AI) 로봇사업을 본격 추진할 로봇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다.

대동그룹 계열 대동모빌리티는 국내 최고의 로봇전문연구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과 손잡고 조인트 벤처(JV)로 지능형 자율 로봇(Intelligent Autonomous Robots) 회사인 ‘대동로보틱스’(Daedong Robotics)를 설립, 계열사로 추가하고 그룹의 글로벌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으로 육성한다고 4일 밝혔다.

대동모빌리티는 ‘Beyond Mobility, Robotics’를 기치로 ▲ 소형트랙터 및 작업기 ▲ 가드닝(승용잔디깎이) ▲ 레이저(골프카트) ▲ 퍼스널(전기 스쿠터) 스마트 모빌리티의 전동화·지능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 이동용 체어로봇과 물류 배송 로봇도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대동모빌리티와 KIRO는 지난달 말

사업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제휴 수준의 사업협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KIRO 및 투자조합(로봇 전문가 중심으로 출자된 투자조합)은 로봇관련 특허권 및 특허사용권, 투자조합 출자금을 통해 대동로보틱스 초기 출자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과 연구기관간 시너지로 미래 로봇시장을 창출하는 사업협력 모델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 계획이다.

대동로보틱스는 ▲ 농업·산업용 전문 서비스 로봇 ▲ 이동·운반용 개인 서비스 로봇 ▲ 청소·제설 등 특수 임무 등 3개 분야에 걸쳐 그룹 지능형 로봇 제품의 사업 기획, 제품 설계, 영업 및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전담한다.

대동로보틱스의 초대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대동의 농기계, 모빌리티, 로봇 개발을 주도한 대동 감병우 상품기획부장이 맡는다. 아울러 대동모빌리티 및 그룹의 로봇사업 인력, 대동·KIRO 로보틱스센터 연구원들이 합류해 로봇 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높인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만원의 행복’ 이벤트

공영홈쇼핑이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과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진행한다.

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100% 국내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농업인에게 힘을 주기위해 기획했다.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에 선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7000원, 3000원 2종으로 구성된 1만원 쿠폰팩을 발급한다. 매일 선착순 3000명에게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동안 ID당 1번만 받을 수 있다. 7000원 쿠폰은 5만원 이상, 3000원 쿠폰은 3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7일이다. /김승호 기자

영하 10도서 타설 ‘동절기 콘크리트’ 개발

유진기업, 시공비용 절감 효과에
기존보다 거푸집 탈형시간 단축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겨울철 건설현장의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온도에서도 타설이 가능한 동절기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4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계열사 동양과 협력해 개발한 동절기 콘크리트는 영하 10도의 혹한 환경 속에서도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별도의 급열 보온이 필요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겨울에는 낮은 온도 때문에 콘크리트의 경화가 지연되거나 내부 수분이 얼어 경화가 중단되는 등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따른다.

유진기업이 이번에 출시한 동절기 콘크리트는 조강 시멘트와 특수 화학 첨가제를 활용해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빠르게 촉진시킴으로써 타설 후 40시간

전후에 5Mpa(메가파스칼) 이상의 압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제품보다 거푸집 탈형시간을 더욱 단축시킨 것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늦은 오후에 마친다면 다음날 하루 양생을 거쳐 3일 째 오전에는 거푸집 탈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동절기에도 건설 공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보온양생 공정을 생략하여 시공비용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시공성 면에서도 시공속도가 빠르고 겨울철에도 인력과 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유진기업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 콘크리트 개발이 건설현장의 효율성과 품질의 극대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안정적 시공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전국 농가에 '가축 전염병' 비상사태 돼지열병·AI·럼피스킨병 동시 확산

방역당국 비상 대응 체제 돌입
농식품부, 9개 시·군 이동중지명령
올해 돼지열병 10번째 확진 사례
"신속한 살처분·집중 소독 총력"

가축전염병 3종이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소 럼피스킨병(LS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이달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사례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한우·젓소, 가금류, 양돈 농장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강원 홍천 소재 한 양돈농장(2500두 사육)이 돼지 폐사 사례를 방역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지난 3일 판명됐다. 올해 10번째 돼지열병 확진 사례다.

9개 시·군에는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4일 자정까지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홍천과 춘천, 인제, 양양, 강릉, 평창, 횡성, 경기 양평, 가평이다.

방역당국은 "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야생 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및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긴급회의를 열고, 환경부에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국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접경지역



국내 한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뉴시스

인 경기 및 강원에서 올해 상반기 경북까지 확대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강원 동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월 경남 창녕 소재 한 가금농장에서 AI 감염 사례가 나온 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78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인접 시군이 아닌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당국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과 점검, 검사 등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후 이달 4일에는 전북 정읍천야생 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여부는 사흘 내지 닷새쯤 뒤 발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검출지점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닭 48호, 오리 11호, 메추리 1호)에 대한 예찰 강화와 함께,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소 럼피스킨의 경우, 올해 17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양성 판명이 없다가, 8월 12일 첫 사례가 나온 이후 10월 하순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중부지방이 15건, 남부지방이 2건(경북 상주·문경)이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집파리 등 흡혈 곤충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축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 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안전 관리로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총력”

가스안전공, 법정검사·성능평가 시행
전북 완주에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인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수소산업 분야 신제품과 설비 개발 시 안전분야 테스트베드로 활용돼 국내 수소산업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일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한 인증센터 규모는 부지 3만276㎡, 연면적 7760㎡이며, 시험동, 고객지원동, 사무동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시험동은 수전해설비, 수소 추출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법정검사와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로 ‘연료전지 성능평가장비’ 등 36종 102점, ‘유공성능 시험장비’ 등 12종 14점이 구축됐고, 올해 중 ‘배기가스 분석장비’ 등 25종 32점이 구축될 예정이다. 16개 시험실에 73종 총 148점의 검사설비를 갖추게 된다.

센터는 수소용품 4종(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의 법정검사 및 성능평가 업무와 수소용품 창업기업, 해외수출 희망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설비는 각각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도시가스과 메탄올 등을 개질기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추출하는 설비로, 생산된 수소를 이용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들어선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해 저장, 배관공급 및 수소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된다.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는 수소 등 연료가스를 이용해 전기 등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다.

고객지원동에서는 신생수소용품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무공간 지원, 해외수출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독일·체코·캐나다 등 해외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해외인증 취득 대행서비스 등 업무가 이뤄진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수소 산업은 안전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산업으로서, 이번 센터의 개소로 우리나라 수소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연내 ‘먹는샘물 관리 개선안’ 마련

환경부, 오늘 ‘선진화 토론회’ 개최

민관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먹는 샘물 개발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5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먹는 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은 최근 10년간 약 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약 6배 이상 성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 음용비율이 30%를 넘고, 다양한 유통 경로(온라인 직구 및 구매대행 등)가 확대되면서 미량 규제 물질 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 샘물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진행하며, 총 3개 주제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먹는 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 샘물 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향후 먹는 샘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전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에너지 신사업 확장, 지속가능 경영 달성”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 취임
“연구개발·컨설팅 등 동반성장 지원”

한국동서발전 제9대 권명호 신임 사장이 4일 공식 취임했다. 권 사장은 이날 오후 울산 중구 소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첫 만남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권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안정적 전력공급과 안전 최우선 경영 △차별적 중장기전략 수립을 통한 지속성장 △전사적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청렴·협력의 기업문화 조성 △중소기업·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에서 “설비 이용률이 감소하고, 발전소 폐지에 따라 설비용량도 줄어들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전원개발과 신재생, 신사업 분야에서 동서발전만의 중장기사업개발 추진전략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기존 부지와 신규 부지에 대한 사업 경쟁력 분석과 지역 수용성을 고려



권명호 동서발전 신임 사장이 4일 오후 취임식 후 집무실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동서발전

해 차질없이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체되는 복합발전소도 점차 이용률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수소 등 무탄소 연료의 혼소, 전소까지 고려해 회사의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석탄화력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컨설팅 등 동반성장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권 사장은 이밖에 신재생 분야의 경우 송전계통 미비를 고려해 지역별 추진전략을 재수립하고, 태양광은 영농형, 수상 태양광 등 대규모 사업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육상풍력은 우수한 풍황자원과 기존 네트워크가 구축된 동해안 벨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권 사장은 취임 다음날인 5일부터 발전소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점검과 현장경영을 시작한다.

권 사장은 2006년 울산 동구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제5대 울산광역시의원, 제7대 울산 동구청장을 역임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울산 동구)으로 당선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 시절 전력산업의 재정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각종 법안을 발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기계자재 박람회서 950만弗 수출 계약”

농어촌공사,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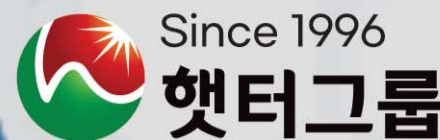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31일 대구 엑스포에서 막을 내린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서 95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농기계·시설자재 분야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상담회는 국내 농기계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이 직접 만나 진행하는 1:1 오프라인

행사다.

행사에는 32개 국내기업과 스페인, 일본, 중국 및 동남아 8개국 21개 구매기업이 참여해 16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19건의 업무협약이 현장에서 체결돼, 950만 달러 규모의 수출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사는 밝혔다. 공사는 상담회에 앞서, 해외 구매기업 선정 시 신뢰도·구매력·장기적 협력 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한 뒤 이를 통해 국내기업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연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2024년 11월 19일(화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창업교육자료**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법인폰 : 010-4480-0045 / E-mail : haettercs@naver.com

교육 주관



교육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4480-004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부산시, 1400억 투자해 '사람·동물 행복한 도시' 만든다

(2029년까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관련 기반시설 24개 → 40개 확충
기업 성장 유도·문화확산 프로그램

부산시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비전으로 한 '제1차(2025~2029)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산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반려동물 산업의 현황, 여건 및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시의 관련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번에 수립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기반 시설 구축 ▲산업 육성 지원 ▲반려동물 문화 확산, 3대 전략에 26



부산시청.

/부산시

개 추진과제를 포함해 2029년까지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첫 번째 전략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24개에서 40개로 확충한다.

전국 최대규모의 '반려문화공원' 조성을 비롯해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복합센터' 건립 ▲반려동물 판 15분 도시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의

료 선진화를 위한 '대학 동물병원' 건립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전략은 '반려동물 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부산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업 지원으로 비약적인 기업 성장을 유도한다.

산업의 외연 확대와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창업 지원,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성장기업 지원사업 추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우수 인재군 구축, 해외 진출을 위한

최고 경영자 교육 등을 수행할 산업 아카데미 운영, 기업-구직자 간 매칭을 통한 일자리 지원 등을 수행한다.

세 번째 전략은 '반려동물 문화확산 프로그램 강화'로, 2029년까지 프로그램을 2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산업이 발전할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

부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동반 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친화업소 발굴, 반려동물 동반 관광상품 개발, 반려동물을 주제로 다양한 테마의 공감 산책로 조성, 민간 관광 기반 시설 유치를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양육가구 증가, 동물권 보호 확산 등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기술과 융합돼 고도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관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국비예산확보 상황실 설치

경남도는 서울본부에 '2025년 국비예산 확보 상황실'을 설치해 4일부터 정부예산안의 국회 최종 확정때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의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회 대응 국비 상황실은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국비팀, 서울본부, 재정협력관, 국회협력관 등으로 구성했다.

경남도는 국비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사업 자료를 제공하고, 기획재정부 추가 설명·대응, 국회 심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김해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부부당 '생애 총 25회'이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었다. 예컨대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각각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회 난임 시술 종류는 인공수정 최대 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1000억 규모 폴리에틸렌 공장 유치

생산설비, 원재료·제품 탱크팜 신설
1만㎡ 부지... 오는 2026년 완공 목표

울산시가 SK피유코어(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폴리에틸렌 생산설비와 원재료·제품 탱크팜(Tank Farm) 신설 공장을 유치했다.

울산시는 4일 시장실에서 '폴리에틸렌 생산설비 및 원재료·제품 탱크팜(Tank Farm)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리에틸렌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매트리스, 자동차 시트 등 원료로 쓰이는 폴리에틸렌 폼의 중요한 원료다.

협약에 따라 SK피유코어(주)는 폴리에틸렌 생산설비와 원재료·제품 탱크팜 신설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신설 공장은 남구 용잠로 255 일원(울산공

장 및 인접 유휴부지 1만㎡)에 들어서며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공장 신설과 관련해 지역민을 우선 채용 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울산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번 신설투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SK피유코어(주)의 이번 투자는 울산의 화학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 유치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이도식 기자



해남군 절임배추 원산지 표시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

/해남군

해남군, 김장철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

절임배추 생산시설 70개소 대상

해남군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말까지 관내 절임배추 생산시설 70개소를 대상으로 배추, 소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명품 해남절임배추'의 명성을 지키고 불량 절임배추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추진하며, 타지역 배추를 해남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에 대한 여부 등 원산지 표시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한 절임배추 생산업체 대상 원료관리, 위생관리, 작업환경관리, 작업자관리 등 절임배추 생산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포항시, 지역대학과 동반성장 기반 마련

'지역-대학협력 실무추진단' 발족

포항시는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일 '지역-대학협력 실무추진단'을 발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추진단장인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포스텍, 한동대, 선린대, 포항대 등 지역대학과 관련 부서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대학협력 실무추진단'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정부의 '글로벌대학 30'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변화한 대학지원 체계에 발맞춰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대학30과 RISE 체제를 주제로 변화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안내했으며, 교육부 중심의 기존 하향식 대학지원 추진 방식이 아닌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포스텍과 한동대에서는 대학별 지역 협력 사업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지역대학들이 포항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현안사업과 관련해 지역과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포항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과 대학 간의 사업 추진 전략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균형발전 우수사례 '대상' 수상

국토부와 '도시재창조 한마당' 개최

전남 목포시는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에서 균형발전 우수사례 지역특화분야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한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은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시는 이번 한마당 행사에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1897 개

항문화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 '목포 근대화투어리즘 1897 개항문화거리'라는 주제로 만호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 시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이하 보리마당사업)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후 원도심 지역자산 활용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영양군

미혼 청년 '솔로탈출' 참가자 모집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바쁜 일상과 만남의 기회가 적은 결혼 적령기 미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영양에서 솔로탈출'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30일부터 1박 2일간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영양에서 솔로탈출"은 미혼 청년 남녀 각 15명이 참여해 흥미로운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한미약품그룹 내홍 심화... 계열사 대표들 공동성명 발표

**계열사 핵심인사들
“상속세 문제에 외부세력 개입
대주주 가족 간 단합 해체되고
임직원 독립경영 선언에 혼란”**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사장. /한미약품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중윤·중훈 '형제' 측의 경영권 갈등이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및 핵심 계열사 대표들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미약품을 제외한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대표들은 한미약품그룹 내 인트라넷을 통해 한미약품 '독립 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성명서를 공개했다.

이 성명서에서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이사, 이동환 제이브이엠 대표이사,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헬스케어사업부문 부사장 등 한미

약품그룹 핵심 인사들은 한미약품이 촉발한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분란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주주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문제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대주주 가족 간의 단합이 해체되고, 이로 인해 한미그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 기여가 없었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 문외한인 단순 주주가 본인의 주가 차익을 위해 잘못된 훈수를 두고 있다”며 “그룹 내의 일부 임직원들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독립경영을 외부에 선언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현재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독자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그동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고, 법무팀 등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 등 '독자 경영'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대해 임중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는 공개적으로 반발해 왔고 이후 지난 9월에는 이사회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해당 이사회에서 임중윤 한미약품 사내이사의 단독 대표이사 선임 안건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교체 및 동사 선임 안건 등은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 대해 한미약품은 유감을 표하며 '독자 경영'에 더욱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독단적인 오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계열사 대표님들의 갈등과 고민, 고뇌도 함께 읽을 수 있었기에 한미약품이 추구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는 더욱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박준석 부사장(한미사이언스)과 장영길 대표(한미정밀화학)는 다가오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진 후보로 지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이해당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외부세력 개입 중단을 선언한 만큼, 한미사이언스에 특정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방식, 또는 제3의 기업에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오늘 이 시간부로 당장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오는 12월 19일 서울 교통회관에서 임시주총을 연다. 안건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현대免, 새 BI 공개... “브랜드 경쟁력 강화”

**혜택 ‘더하기’, 부담 ‘빼기’ 조합
온라인서 초성퀴즈 이벤트 진행**



현대면세점이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선보인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새로운 BI도 선보여 고객에게 더욱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현대면세점은 신규 BI를 무역센터점과 동대문점, 인천공항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신규 BI는 더하기(+)와 빼기(-)를 조합한 것이 특징”이라며 “풍성한 혜택과 새로운 즐거움을 더하고(+), 쇼핑부

담과 불편함은 덜어낸다(-)는 뜻을 디자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BI를 활용한 초성퀴즈 이벤트도 연말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인터넷면세점에서 진행되는 초성퀴즈에 참여하면 총 2만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쇼핑혜택을 증정한다.

현대면세점은 BI 변경과 함께 신규 브랜드 유치를 통해 사업 경쟁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인천공항점에서는 지난달 생로랑과 발렌시아가 부티크가 각각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문을 열었다. 이로써 인천공항점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루이비통, 샤넬, 구찌에 더해 총 26개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해 국내 면세업계 최고 수준의 명품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무역센터점은 지난 7월 펜디에 이어 지난 10월 생로랑 매장을 새롭게 오픈했으며, 이달 중 발렌시아가 매장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동대문점에는 올해 마랭김, 마리떼프랑스와저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신규 K패션 브랜드가 대거 입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몽골 정부 관계자와 현지 10여명의 기업인들이 1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SPC그룹 패션5를 방문해 베이커리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해외 진출 성공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SPC그룹

SPC, K-베이커리 노하우 몽골에 전파

몽골 정부 관계자 등 10여명 방한
패션5 방문, 베이커리 기술 체험

최근 몽골에서 K-푸드의 인기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몽골 정부 및 현지 기업인들이 K-베이커리의 우수성과 해외진출 전략을 배우기 위해 SPC그룹을 찾았다.

SPC그룹은 지난 1일 몽골 정부 관계자와 현지 10여명의 기업인들이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패션5를 방문해 베이커리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해외 진출 성공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4일 밝혔다. SPC그룹을 방문한 기업인들은 몽골 기업가협회 회원사 소속이다.

SPC그룹은 이 자리에서 휴면반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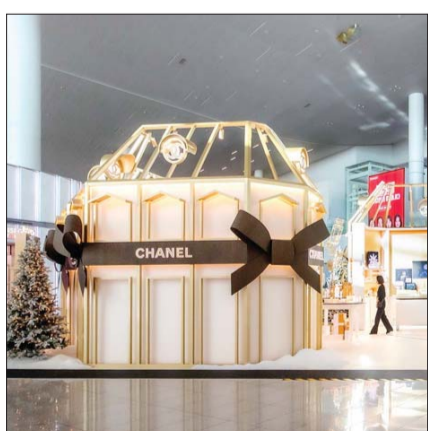
통한 균일한 품질관리, 프랜차이즈 경영 노하우, 국가 별로 특화된 현지화 전략 등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곳곳에는 한국의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프랜차이즈가 대거 진출하면서 K-푸드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울란바토르와 경기도 동탄신도시를 합친 ‘몽탄신도시’라는 신조어도 생겼을 정도다. SPC그룹이 몽골 기업인들과 협력하면 그동안 구축된 중국사업 인프라와 연계돼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免, 인천공항에 ‘샤넬 윈터 테일’ 조성

2터미널에 아태 면세 최대규모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에 아시아 최대 규모 ‘샤넬 윈터 테일’ 포디움 오픈. /신세계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이 샤넬과 함께 윈터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신세계면세점은 샤넬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면세 최대 규모의 ‘샤넬 윈터 테일’ 포디움을 인천공항 2터미널에 선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샤넬과의 두 번째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샤넬 윈터 테일’은 약 142m² (43평)으로 더 넓어진 공간에서 샤넬 하우스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동화 속 세계를 재현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12월 26일까지 열리는 ‘샤넬 윈터 테일’에서는 연말 해외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다양한 뷰티 제품은 물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향수를 포함한 ‘익스클루시브 기프트 세트’, 피부케어에 위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 오로라 빛과 눈꽃에서 영감을 받은 ‘메이크업 리미티드 에디션’ 등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인 제품

/최빛나 기자

컬리 10일까지 ‘컬리세일’

컬리는 총 2000여개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가을맞이 ‘컬리세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유통업계의 11월 온·오프라인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동참하고자 할인 적용 상품도 대폭 늘렸다.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자, 고구마, 사과 등 가을 제철 과일과 채소는 물론 칼국수, 전골, 밀필유나베 등 인기 밀키트까지 한자리에 모았다. 필수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단골 상품들도 특가 판매한다.

베스트셀러를 최대 혜택으로 누릴 수 있는 컬리픽 특가 코너에서는 각 카테고리별로 컬리가 꼽은 대표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뷰음’류에서는 압구정주꾸미 뷰음을, ‘냉동간식’류에서는 99핫도그를, ‘튀김’류에서는 컬리스 유린기를 추천한다. 쟁이기 찬스 코너 상품들은 담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마마리 소고기 무국, 육이네 보리새우아욱국, 오모가리 돼지 감치찌개 등 인기 국탕찌개 12종을 균일가 5500원에 골라 담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CJ푸드빌, 현대카드 ‘M70 프로모션’

M포인트 최대 70% 사용 이벤트

CJ푸드빌이 뚜레쥬르, 빙스 등 주요 브랜드에서 현대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M70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지난해 현대카드 최초로 시행한 ‘M70 프로모션’에 단독 파트너로 참여하여 제휴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왔다.

해당 프로모션은 현대카드 결제 시 구매 금액의 최대 70%까지 M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브랜드 이용이 가능한 장점과 결제 편리성 등으로 이어진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CJ푸드빌은 연말을 맞아 자사 베이커리, 외식 브랜드를 풍성한 혜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현대카드와 최대 70% M포인트 사용 이벤트를 추가 마련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뚜레쥬르, 빙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등 CJ푸드빌의 대표 브랜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패션업계, 대만 시장 주목... 팝업·파트너십 등 본격 진출

글로벌 시장 통해 성장동력 확보
기업 간 협업 활발... 현지화 속도
팝업존 운영 등 소비자 접점 확대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패션업계가 글로벌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대만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넘어 동남아 시장까지 저변을 확대하고, 입지를 굳혀 매출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패션업체들이 대만 시장 입지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대만 국민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대만은 매출을 견인할 동력을 찾기 적합한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관광데이터랩의 대만 해외 시장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 기준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 수는 110만2274명으로 지난 2023년 같은 기간(66만5235명) 대비



대만 무신사존 팝업스토어 현장



대만 미츠코시 백화점 내 가스텔바작 매장 전경

18일 김본 대표를 방문해 디젤 형 김본 대표를 만나 한국과 대만 사이의 유통망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게 가스텔바작 측 설명이다.

가스텔바작 관계자는 "가스텔바작의 경우, 화려한 색상과 유니크한 아트웍이 범중화권 소비자의 요구에 잘 맞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만 진출을 결정하게 됐다"며 "실제로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점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혀 현지화 공략에 나선 곳도 있다.

무신사는 지난 9월 대만에서 진행된 '2024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무신사존 팝업을 3일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가 자체적으로 목표한 방문자 수보다 30% 이상 많은 대만 고객들이 다녀갔다"며 "팝업 운영 기간 무신사 글로벌의 대만 거래액은 일평균 대비 68% 증가했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65.7% 늘어났다.

이에 국내 패션업체들은 대만 고객들을 잡기 위해 현지화 전략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패션업체들은 대만 시장 공략의 주요 방법 중 하나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기업 감성코퍼레이션은 지난 9월 일본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의 대만 지사인 스노우

피크대만 및 대만 유통사 스타라이크와의 협업을 발표하며, 대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밝혔다.

협업은 감성코퍼레이션이 의류 및 잡화 제품들을 공급하고 스노우피크대만과 스타라이크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감성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대만 시장에 이어 일본 시장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며 "대만, 일본, 중

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가스텔바작' 역시 대만 시장 공략책으로 현지 파트너사인 김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김본은 대만 패션 유통 전문 기업으로 현재 가스텔바작의 현지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가스텔바작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은 지난 10월

“즐거운 여행길, 홍삼으로 에너지 더하세요”

KGC인삼공사 정관장

‘에브리타임 필름 맥스&컴피’ 출시
낮과 밤에 어울리는 원료로 맞춤 케어

정관장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낮과 밤에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는 ‘에브리타임 필름 맥스&컴피’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에브리타임 필름 맥스&컴피’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필름형 제품으로 각각 낮과 밤에 어울리는 원료들이 함유되어 있어 여행과 일상 등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춰 건강을 케어할 수 있다.

‘에브리타임 필름 맥스’는 ‘브라질의 홍삼’이라고 불리며 천연 카페인 성분을 함유한 과라나추추출물과, 비타민 B군(비타민 B1, B2, B6)을 담은 제품으로 여행 등 낮에 활력이 필요할 때 간편하



에브리타임 필름 맥스&컴피 /KGC인삼공사

게 부스트업(Boost-Up) 할 수 있다.

락티움과 타트체리주스분말을 담은 ‘에브리타임 필름 컴피’는 체력을 회복

하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락티움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타트체리주스분말은 식물성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 ‘신의 선물’로 불리기도 한다.

‘에브리타임 필름 맥스&컴피’는 구강용해필름(ODF)에 정관장의 기술로 홍삼농축액을 압축시킨 제품으로 초경량 개별포장이 되어 있어 언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한편, 정관장은 ‘건강관리는 정관장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17일까지 ‘기다림 침향’, ‘아이페이스’, ‘천녹부스팅’, ‘달임액’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증정한다. 또한 12월13일까지 알파프로젝트 포커스라인 6종을 구매하시는 분에게도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모레퍼시픽 ‘에스트라’ 홀리데이 한정판 출시

아모레퍼시픽은 대표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에서 2024년 연말을 맞이해 홀리데이 한정판 기획세트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한정수량으로 선보이는 이번 기획세트는 ‘아토퍼리어365 크림 더블’과 ‘아토퍼리어365 크림&미스트 듀오’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 모두 일러스트레이터 이슬아 작가와 협업해 ‘더마 연구원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꾸며졌다. 각 세트에는 이슬아 작가의 일러스트를 담은 엽서 2매가 포함된다.

에스트라 ‘2024 홀리데이 한정판 기획세트’는 이달부터 아모레몰, 카카오 선물하기,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이청하 기자

종근당, ‘CKD-508’ 美 FDA 1상 승인

(이상지질혈증 치료 신약)

“스타틴 불응 환자, 새로운 옵션 기대”

종근당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자체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 신약 ‘CKD-508’의 개발을 위한 미국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상에서 종근당은 CKD-508의 안전성 및 지질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임상 2상을 위한 최적 용량을 탐색할 예정이다. CKD-508은 혈액 내 지방단백질 사이 콜레스테롤에스테르(CE)와 중성지방(TG)의 운반을 촉진하는 콜레스테롤에스테르 전이단백질(CETP)의 활성을 억제하여 저밀도 콜레스테롤(LDL-C) 수치를 낮추고,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 수치를 높여 주는 기전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다.

종근당은 효종연구소에서 진행한 비임상 효력실험에서 CKD-508의 LDL-C 감소 및 HDL-C 증가 효과를 명확히 확인했으며, 이상지질혈증의 주요 지표인 아포단백질(Apo-B)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CKD-508은 CETP와 강한 결합력을 바탕으로 약물학적 및 혈압상승 등의 문제로 개발을 중단한 이전 CETP 저해제들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저용량에서도 약효가 기대되는 혁신적인 약물”이라며 “개발에 성공할 경우 스타틴(콜레스테롤 합성저해제) 계열의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스타틴 불응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유럽 주요국 ‘스테키마’ 출시

독일·네덜란드 출시... 시장 선점 집중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를 유럽에 출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달 1일(현지시간) 유럽 주요 5개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 스테키마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셀트리온 독일 법인은 제품 출시 일정을 고려해 사전에 약가 등제 및 처방 시스템 등록 절차를 마치는 등 시장 맞춤형 전략을 통해 제품 출시를 빠르게 진행했다.

셀트리온은 같은 날 네덜란드에서도 스테키마를 출시했다. 특히 출시와 동시에 셀트리온 네덜란드 법인은 현지 주요 의약품 구매 조합인 IZAAZ 입찰까지 따냈다. IZAAZ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병원그룹으로, 의료 현장 전반에서 영향력을 지닌 주요 공급 채널로 손꼽힌다. 해당 입찰은 네



자가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셀트리온

덜란드 우스테키누맙 시장의 약 27%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달부터 약 2년간 스테키마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북유럽 주요국인 핀란드에서는 이달 중순경 출시 예정이다. 핀란드에서는 론칭 전부터 현지 주요 의료관계자들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시장 선점을 빠르게 이끌 계획이다. 아일랜드에서도 이달 중 출시를 목표로 삼고 현지 법인이 21일부터(현지 시간)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아일랜드 소화기학회 동계 회의’에 참석해 제품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JW중외제약, 보육기 3종 ‘CE MDR’ 인증

(유럽 의료기기)

‘하이-마미’ 국내 최초 인증

JW중외제약은 ‘하이-마미(HI-MAMI)’ 보육기 3종이 국산 브랜드 중 최초로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CE MDR은 환자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품질, 안전성, 성능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이다. 기존 규정인 의료기기 지침(MDD)을 대체해 지난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으며, EU 지역으로 수출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기존 MDD 만료 전 반드시 CE MDR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산 보육기 중 CE MDR 인증은 받

은 것은 JW중외제약의 하이-마미가 처음이다.

하이-마미는 하이브리드 보육기를 포함해 고급형과 보급형 등 3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이-마미 하이브리드(JW-Hi7000), 고급형(JW-i7000) 보육기는 글로벌 메이커 3사(미국 GE헬스케어·일본 아토퍼메디칼·독일 드러거) 제품이 탑재한 매트리스리라이닝 기능에 더해 조절 각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JW중외제약은 CE MDR 인증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비롯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오픈기념 '화요' 이벤트

프리미엄 숙성한우·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은
이자카야나무의 패밀리브랜드입니다.

지금, 아래 QR코드를 찍고 나무가든 **회원가입** 하시면
'화요25' 1병을 드립니다.



📅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 고기손님 한정(식사손님 제외) 🍷 테이블 당 1회 🏢 직원 호출 후 진행

문의 02-785-8883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일동제약, '한국물류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일동제약은 지난 1일 물류의 날을 맞아 열린 '제32회 한국물류대상'에서 자사 SCM(공급망관리)팀의 김명환 차장(오른쪽)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일동제약의 김명환 차장은 자사의 신규 물류센터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물류자동화설비 도입, 창고관리시스템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동제약



금호타이어, '희망의 공부방' 34호점 완공

금호타이어가 희망의 공부방 34호점을 완공했다고 4일 밝혔다. 34번째를 맞은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 활동은 금호타이어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금호타이어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왼쪽)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선희 나눔사업2팀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대상, 레드닷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본상 수상

대상(주) 종가가 지난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정훈 대상 브랜드그룹장(오른쪽), 최희영 대상 브랜드 캠페인팀장(가운데), 이한규 먼프 대표가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



동아쏘시오그룹, 장애인식 개선 '동고동락' 행사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동고동락'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직원들은 발달장애인과 놀이 기구를 즐기고 조별 미션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체험과 교류를 나누며 동행했다. /동아쏘시오그룹



삼성KPMG,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삼성KPMG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4일 삼성KPMG에 따르면 삼성KPMG 임직원과 가족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악지구협의회 봉사원 80여 명은 지난 2일 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부봉사관에 모여 김장김치 2700kg을 직접 담그고 포장했다. /삼성KPMG

현대차, 국내 최초 '그린수소 연계 이동형충전소' 운영

'H 제주 무빙 스테이션' 준공 "수소 생태계 확장 역할 기대"

현대자동차는 제주 구좌읍에 있는 CFI(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 에너지 미래관에서 이동형 수소충전소인 'H 제주 무빙 스테이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H 제주 무빙 스테이션은 지난 2022년 서울 광진구에서 운영을 시작한 'H 광진 무빙 스테이션'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이동형 수소충전소이자, 국내 최초 그린수소 연계 수소충전소다.

이동형 수소충전소는 현대차의 25톤 대형트럭인 '엑시언트'에 수소압축기, 저장용기, 냉각기, 충전기 등 핵심 설비가 모두 탑재돼 하나의 완벽한 수소충전소 역할을 수행한다. 수소전기차 '넥쏘'를 기준



현대차의 이동형 수소충전소 'H 제주 무빙 스테이션 (Moving Station)'.

으로 1대당 최대 2.5kg 내외의 수소충전을 지원하며, 최대 20대까지 충전할 수 있다.

특히 H 제주 무빙 스테이션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정부 기관과 지자체, 민간 기업이 힘을 모았다.

국도교통부는 수소충전 차량 자기인증 특례지원을 하고 환경부는 수소 인프라 구축 인허가 지원했다. 산업부는 수소 산업 정책 지원, 제주

도는 지자체 행정 지원했으며 현대차는 이동형 수소충전소 기획·투자·설계를 총괄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그린수소 공급을 담당하고 현대로템은 수소충전 차량 제작·관리를 지원하며,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충전소 부지 제공 및 운영을 각각 담당한다.

현대차는 H제주 무빙 스테이션을 발판 삼아 향후 수소전기차 렌터카

도입 등 수소 차량 보급에 보다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주는 국내에서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 있고,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향후 수소 생태계 확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김동명 사장, 구성원 자녀 수능 응원

(LG에너지솔루션)

'수능 격려 선물키트' 전달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사진)이 구성원들의 수험생 자녀들에게 응원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4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앞둔 구성원의 수험생 자녀들에게 '수능 격려 선물 키트'를 전달했다.

김 사장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많이 긴장되었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자신을 믿고 신중히 임한다



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떨리는 이 순간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라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선물 키트에는 행운을 기원하는 네잎 클로버 키링과 함께 프리미엄 쿠키, 기프트 카드,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전지 모양의 상자에 담긴 우산 등이 담겼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같이 뛰어'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기아

기아, 창립 80주년 마라톤 대회 성료

임직원 등 2842명 참여

기아가 지난 2일 경기 수원시 광고 호수공원에서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마라톤 대회 '기아 같이 뛰어'를 개최했다.

기아는 임직원들이 마라톤 완주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리면서 '함께(Together), 기아처럼(Like), 가치(Value)'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창사 최초로 마라톤 대회를 기획했다.

마라톤 코스는 광고 호수공원의

원천호수와 신대호수 둘레를 달리는 총 8km 길이로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숫자 '8' 모양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는 기아 전 직군의 임직원과 가족 등 총 2842명이 참여했다.

기아 관계자는 "당초 예상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임직원이 참여해 행사를 빛냈다"며 "앞으로도 기아는 전 직군의 임직원이 하나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문 기자 ysw@

파리바게뜨, 수능선물세트 선봬

파리바게뜨는 오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응원하는 수능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파리바게뜨 수능선물세트는 '은우주가 널 응원해'를 슬로건으로, 행운을 의미하는 네잎클로버와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찰떡 등 재치있는 스토리를 제품에 반영했다. ▲곧 펼쳐질 미래를 표현한

오색찬란한 찰쌀떡에 통팠, 고구마, 고운 팔랑금 세 가지 맛을 담은 '오색찬란 찰쌀떡' ▲다양한 색상의 찰쌀떡과 고소한 후두정과로 구성된 '합격 기원 세트' ▲쫄득한 식감의 초콜릿 가나슈가 가득한 미니 초코찰떡과 달콤한 브라우니 쿠키로 구성된 '만점 기원세트' 등이 대표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외교부 ◇국장 인사▲부대변인 유창호
- ◆기획재정부◇국장급 인사▲재정관리국장 박봉용

부음

▲ 김윤재(전 효성물산 부사장)씨 별세, 김옥례(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류학과 명예교수)·김인혜(전 동명생활경영교 교장)·김인식·김옥경·김근숙·김석우(원광대 역사교육과 교수)씨 부친상, 이지수(군산

대교수)씨 시부상, 진영수(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김동섭(전 코스맥스바이오 사장)·서병기(전 IBK투자증권 사장)·안성준(전 LG유플러스 전무)씨 장인상 = 3일 오후 2시2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6일. 02-3010-2000

▲ 우경애씨 별세, 박상조(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씨 부인상, 박향림·박진희·박은혜씨 모친상, 이상민(전 헤럴드경제 기자·아킬라 대표)·이대희(블리자드 이사)씨 장모상 = 3일 오후 8시41분,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6일. 02-2152-1346

저소득가정 학생 등 후원

에쓰오일이 마포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서울 마포구청에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과 마포복지재단에 저소득가정 학생들과 지역사회 후원을 위해 총 1억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에쓰오일 류열 사장은 "에쓰오일의 장학금과 후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



에쓰오일이 4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과 마포복지재단에 저소득가정 학생들과 지역사회 후원을 위해 총 1억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한일용 이사장, 에쓰오일 류열 사장, 마포복지재단 이흥주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No.1을 넘어 Only.1으로
한양사이버대학원

한양대학교의



- ✓ 국내 최초 온라인 박사과정
- ✓ 글로벌 TOP100 6위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원



클래스로

| 한양사이버대학원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박사과정 개원,
일반대학원 온라인 석·박사과정 / 경영전문대학원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적학생 수(1,240명)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gs.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원 25학년도 1학기 석·박사과정 모집

2024년 11월 01일(금) ~ 12월 12일(목)

대학원	학과	
일반대학원	기계IT융합공학	법·행정
	도시건축공학	교육공학
	아동가족	디자인기획
	상담및임상심리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마케팅, FA&T, IT경영, 광고미디어 트랙)	

맞춤형 석사과정

학점/논문과정
선택 가능



입학지원

대학원 입학문의 | 02.2290.0700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의료 개혁’ 하려다 ‘의료 박살’



한용수의
돌직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이 의료 파탄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처음 정부의 의대 증원은 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반발하자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부정 여론이 커졌다.

이미 의대 교육 파행은 되돌릴 수 없게 됐다. 대다수 의대 1학년 학생들의 휴학으로 사실상 의대 한 학년이 없어진 상태다. 본과 4학년도 대다수가 수업을 듣지 않아 당장 내년 의사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올해 9월 시행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에 예년의 10분의 1 수준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사국시를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문제가 생긴다.

동맹 휴업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최근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없이 승인함으로써 의대 증원을 놓고 벌인 의정 갈등에서 의사 단체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으나, 의대생이 돌아와도, 돌아오지 않아도 문제다. 올해 휴업했던 의대 1학년생들이 내년 3월 복귀하면, 내년 신입생 4500명과 합친 최대 7500명이 1학년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기자재, 교수 부족 등으로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은 의대 수업은 물론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년간 함께하면서 교육도 수련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휴학 승인시 등록금을 돌려줘야 해 대학들은 재정난도 걱정해야 한다.

이에 의료계는 한 발 나아가 내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의학교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며, 이미 진행 중인 내년 신입생 정원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대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대량 유급·제적 사태로 번져 의학교육 파행이 벌어진다.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리 불능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대학들은 1년 4학기제, 분반, 온라인 강의 확대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강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내년 의대 정원이 크게 증가한 지방 의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아무런 협상력도 보여주지 못한 정책 당국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의대 증원 불가를 못 막아두고 정부와 대화를 거부한 의사단체 또한 공동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원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자의 반 타의반 휴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물론,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제라도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의정 중심 협의체 구조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반복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의대 증원의 근거인 미래 의사 수요와 공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도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세종=hys@metroseoul.co.kr

반도체특별법의 운명은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곧 반도체특별법 당론 법안을 낸다고 한다. 당론 추진 법안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조항의 삽입 여부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직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들의 대규모 직접보조금 지원과 세제 지원을 언급하며 재정 투입을 설득했다. 업계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한 메모리 제조 분야에 경쟁국의 직접보조금이 투입되면 원가경쟁력에서 뒤쳐 장기적인 재투자가 힘들어지

는 약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도체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산업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 미국 같이 반도체 제조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나, 일정 수준 보조금을 받으면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중국 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등 재원 마련과 경제 안보 측면까지 전략적으로 고려했다.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해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태에서, 집권여당이 ‘경제 안보’·‘미래 먹거리’ 등의 선언 뿐만 아니라 정교한 재원 마련 대책을 갖고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를 설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여가는 직접보조금 논의 이후,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상한 예외’ 논의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주52시간 노동제’라는 경직된 근로환경이 자율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연구인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젠션’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상한 예외’도 경쟁력 확보라는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고소득자 엔지니어 등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약속과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정교한 정책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경쟁국의 반도체 정책에 한국 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정국회의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각자 안을 놓고 보조금, 근로시간, 전력망 연결 문제 등이 담긴 ‘특별법’을 심사했으면 한다. /pth7285@

오늘의 운세 11월 5일 (음 10월 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동분서주해야 오늘은 별 소득이 없다. **48년생** 재산분배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하는 것. **60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72년생** 지금까지의 실력이 사회적으로 발휘한다. **84년생** 작은 성과이지만 항상 만족스럽다.
- 37년생** 가슴이 답답하여 한잔 술이 달래준다. **4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 **61년생** 오늘은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보도록. **73년생** 옛날부터 평범한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하는데. **85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 38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50년생** 선대의 유덕에 힘입어 평생 낙낙하다. **62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 **74년생** 물다리로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묻자. **86년생** 친구나 가까운 사람과 불화조심.
- 39년생** 자식이 나의 고생을 알아준다. **51년생** 행운은 각자의 판단 나름. **63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75년생** 세월이 있고 아직 젊으니 실패가 연속된다고 쓰러지지 마라. **87년생** 4자가 누구에게나 흥한 숫자는 아니다.
- 40년생**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52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뱀띠의 도움으로 거래가 성사. **64년생** 남을 배려하면 나에게 득이 된다. **76년생** 작은 승리를 거두면 자신감이 생겨야 잘해. **88년생** 연인의 초대로 마음이 즐거울 날.
- 41년생**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53년생** 투자는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 **65년생** 새로운 만남 특히 이성을 조심. **77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좌불안석이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89년생** 가족과 떨어지면 이어서 재물실패가 따른다.
- 42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54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해보자. **66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78년생** 인생 전반기 승리는 후반기 실패의 씨앗이 되기도. **90년생** 우연한 행운은 없을 듯.
- 43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 **55년생**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67년생** 진인사대천명이나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79년생** 세월의 운로는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을 것. **91년생** 마음을 표현하며 조금은 베풀자.
- 44년생** 호랑이띠 양띠와의 거래가 순조롭다. **56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길이 보이게 되니 여유를 가져라. **68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본다. **80년생** 엄격한 훈육은 지성인에게 통하는 것일 듯. **92년생**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얼 것을 준비.
- 45년생** 분위기를 바꿔 보는 것도. **57년생** 자식을 과잉보호하면 자녀의 체제가 나빠질 수도. **69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81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93년생** 아프다 하지 말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다.
- 46년생** 하늘의 뜻은 항상 공평하다. **58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70년생** 재운이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겠다. **82년생** 장자가 말하길 이빨이 있으면 뱀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94년생** 오후 운전 주의.
- 4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59년생** 정중지와(井中之蛙)나 우물안 개구리나 마찬가지. **71년생**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 **83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귀인. **95년생** 가족끼리 미안함을 갖지 않도록.



김상회의
사자와 길흉

큰 시험이든 일반 학교 시험이든 시험 때마다 나름의 징크스를 겪는 경우들이 있다. 시험일 당일의 컨디션이 중요하지만 수험생의 일진을 포함한 운기의 흐름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준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실력은 있는데 시험 운이 없어서.. 라는 말도 하게 된다. 나오는 결과에 핑곗거리로 삼는 예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논외로 하고 말이다. 그러나 정말 근거 없는 징크스를 떠올리며 그 일반화된 개념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면 소강절선생이 창시했다고 여겨지는 매화역수(梅花易數)만 봐도 길흉의 숫자는 각각 다르다. 즉 매화역수에서는 운을 따질 때 각자의 생년월일을 환산하여 하나의 자기 기본 숫자를 추출한다. 그런 다음 연월을 대입하여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대입하여 기본 숫자와의 합산으로 도출하여 나온 숫자를 괘로 삼아 운기의 흥과 길을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그해의 전체 운은 물론 달마다의 운기는 물론 시험일 당일의 일진까지도, 더 나아가 시간대의 운기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펼쳐가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4가 행운의 숫자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2가 길한 숫자가 된다. 어떤 이에게는 4자나 2자가 흥수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정서에 나쁜 숫자 불길한 숫자로 인식된 숫자 4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흥수가 아닌란 얘기다. 그러나 집단 무의식은 사회적으로도 위력을 발휘하니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4층을 빼놓고 3층 다음에 5층이 되며 집 호수에도 4호는 없고 3호에서 바로 5호로 하는 것이 비밀비재하다. 예전에 필자가 편찬한 ‘행운을 부르는 특급비결’이라는 가볍게 읽을만한 저작이 있다. 여기서도 숫자에 길흉이 담겼다는 의미로 한 챕터를 할애한 바 있다. 각자 행운이라고 판단된 숫자는 분명 생활의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6 4		9
				3 7
1 5	9 7			8
				8
1	9		5	4
5				
7		8 9	6 4	
3 9				
5		2 1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6	9	1	2	8	7	9
2	1	8	9	7	2	9	6	8
9	7	9	6	8	1	2	9	1
1	6	8	2	7	2	9	9	1
7	2	9	2	8	9	6	8	1
9	8	2	1	6	9	2	8	7
8	9	7	8	2	6	9	1	2
2	8	1	2	9	8	7	9	6
6	9	2	7	9	1	8	2	8

2	9	8	7	9	1	2	8	6
2	7	6	8	2	9	9	8	1
1	8	9	6	8	2	9	7	2
8	1	7	9	2	6	2	9	8
6	2	9	8	7	6	1	9	2
9	2	8	9	1	2	7	6	8
9	9	2	8	8	6	1	7	9
8	6	2	1	9	7	8	2	9
7	8	1	2	6	9	8	2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성남시, 사회복지 중점 예산편성 올해보다 8.2% 늘린 3조8298억

일반회계 3조1599억, 특별 6699억
복지분야 1조3486억, 최대액 배정
교통·물류 분야에 3722억 편성

성남시는 3조8298억원 규모의 내년
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3조5402억원보다
2896억원(8.2%) 증가한 것으로, 일반
회계 3조1599억원, 특별회계 6699억원
이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
은 1조3486억원(일반회계의 42.7%)을
배정했다.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83억원, 보훈회관 이전 건립 공사 59억
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공사
38억원, 해남달남놀이터 운영 지원 15
억원,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10억원 등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인다.

교통·물류 분야는 3722억원을 편성
했다. 탄천 교량 보강과 보도교 신설 공
사 379억원,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
116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
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금 77억원,
교량 정기 안전 점검과 진단 용역비 26
억원, 내곡터널 방재시설 설치 공사 23
억원 등이다.

환경 분야는 2304억원의 예산을 배
정했다. 상대원동 600톤 환경에너지시
설 위탁 운영비 105억원, 벤치와 쓰레
기통 설치 사업비 64억원, 쓰레기 거점
배출시설(72곳)과 쓰레기 보관함
(480개) 설치비 18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20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흥동 박물관 전시동 건립
87억원,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
문화타운 조성 사업(1단계) 77억원, 여

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60
억원, 수내도서관 건립 34억원, 대장지
구 공공도서관 건립 32억원 등이다.

국도·지역개발 분야는 15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 사업 133억원, 대왕저수
지 수변공원 조성 80억원, 울동공원 생
태문화공원 조성 25억원, 오리역세권
미래비전 용역비 8억9000만원 등이 지
역개발 예산으로 쓰인다.

이 외에도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금
97억원,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 90
억원, 산성공원 재정비와 숲속 커뮤니티
티센터 건립 50억원, 정자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 23억원, 청년 정보플랫폼 구
축비 2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안은 오는 20일 개최하는 ‘성
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7일 확정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 2027년 문연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위치
공공도서관 첫 ‘자동화서고’ 도입

서울의 두 번째 시립도서관 ‘김병주
도서관’이 오는 2027년 서대문구 북가
좌동에 문을 연다. 김병주도서관에는
이용자가 도서를 검색하면 로봇이 자
동으로 찾아내고 배치하는 최첨단 기
술을 활용한 자동화서고(ASRS)가 공
공도서관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시의 두 번째 시립도서관 ‘김병주도서관’
조감도. /서울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
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
일환으로 건립 예정인 김병주도서관이
서울 서대문구에 건축된다. 북가좌동
479번지(3486㎡)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9109㎡ 규모다. 총 사업비는
675억원이다. 도서관 건립비용 중 절반
에 달하는 총 300억원을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부하면서 도서관
이름이 김병주도서관으로 지어졌다.

특히, 국내 공공도서관 최초로 로보
이 도서를 찾고 배치·대출대로 전달하
는 시스템인 ‘자동화서고(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AS
RS)’를 도입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
는 동시에 통유리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동서고 갤러리도 조성해 볼거
리를 제공한다.

또한, 인접한 가재울 중앙공원과 조
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원 속 도서관’이
자 ‘가족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
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상층은 필로티
(기둥방식) 구조의 개방된 형태로 조성
해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야외독서
마당으로 조성한다. 옥상에는 공연장같
은 옥상정원도 펼쳐진다. /이현진 기자

지하철 역사 무인프린트 전문점 입찰 진행

서울교통공사, 상계역·신용산역 등
서비스 수요 높은 역사 선정·입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를 통한
물품 구입이 늘면서 지하철에도 무인
가게 열풍이 불고 있다. 시민 편의를 위
해 지하철 역사 내에 입점한 밀키트, 반
려동물 용품, 무인프린트 등 무인가게
가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시민들
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유치가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가 4일부터 무인프린트 전문점
입찰을 진행한다. 사진은 불광역 내 무인프린
트샵 매장 모습.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는 4일부터 4호선 상계
역, 신용산역, 6호선 상수역 등 무인 출
력 서비스 수요가 높은 역사를 선정해
무인프린트 전문점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2년 이후 밀키트 전문점,
무인프린트샵, 반려동물 용품점 등 다

양한 업종의 무인 매장을 꾸준히 입점
시켜왔다. 무인매장은 시민편의 증진
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자도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함으
로써 공사와 임차인 모두 윈윈(Win-
Win)하는 대표적인 사업모델이 되고

있다.
무인 매장의 대표적인 업종은 ‘무인
프린트샵’이다. 고객이 직접 매장 내
컴퓨터에서 이메일 또는 USB 등을 통
해 내려받은 파일을 출력하고, 직접 신
용카드나 티머니 교통카드 등 지불수
단으로 결제하면 된다.

최근 무인프린트샵 수요는 계속 증
가 중이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2019년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 조
사에 따르면, 가정 내 프린터 보급률은
지난 2000년 46%에서 2011년 31%로,
2019년에는 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다.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및 PC의 가
정보급률 감소에 따라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022년 8월
신당역 등 6개 역사에 무인 프린트샵을
일괄 유치했다. /이현진 기자 lhj@

경기도, 의료공백 최소화 344억 추가지원

재난관리기금 투입, 응급실 등에 사용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
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내 상급
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
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사용
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
담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
역 필수의료로 지키기 위해 총 424억 원
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
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
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구 없이 이

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
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
터 전담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
한되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
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병력이 있
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
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
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진료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재난관리기금 지원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장애학생 맞춤 진로설계 ‘코칭자료’ 보급

서울시교육청, 직업역량 강화 도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학생의 성공적
인 학령기 이후 사회생활 준비를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 커리어 징검다
리 코칭자료’를 개발해 11월부터 보급
한다고 4일 밝혔다.

코칭 자료는 장애학생의 사회 진출
을 지원하는 맞춤형 자료로, 학생의 직
업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사회생활

자료는 3개의 대주제로 구성됐다. 1
주제 ‘꿈·직업 징검다리 코칭’에서는
취업 지원사업 운영 기관과 직업재활
시설, 평생교육기관을 안내하고, 2주
제 ‘꿈·직업 디딤돌 코칭’에서는 자치
구별, 직업적 독립 관련 정보를 비롯해
돌봄·복지·의료 지원 정책 및 기관 등
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3주제에서는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

터, 서울시장장애인옹호기관을 포함
한 사회통합 지원기관 및 단체 등의 안
내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맞춤
형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직업실기 자
격취득과정(31교) ▲발달장애인훈련센
터 직업체험프로그램(1200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6교) ▲장애학
생 희망일자리 사업(16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132교) ▲특수학교 진로전담
교사 배치(28교) ▲전국장애학생 직업
기능경진대회 지원(9교) 등의 사업을 실
시해왔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1 | 해질 / 17:30

11월 5일 (화)
음력 : 10월 5일

수도권 날씨
5~14°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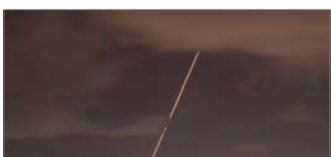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3/13
- 동두천 3/14
- 가평 4/14
- 파주 2/13
- 서울 5/14
- 양평 6/14
- 인천 6/13
- 수원 6/13
- 용인 6/13
- 평택 5/14
- 백령도 8/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 바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해리스 “분열 끝내자” vs 트럼프 “싸
우자”
▲이란 “이스라엘 향한 이란 보복 공격
美 대선 뒤, 취임식 전 감행” /사진 뉴스스

▲한수원, 체코 글로벌 봉사단 파견…
“소통과 지원 이어갈 것”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저고위, ID
B와 고령화 대응 모색



▲조태열 “중양포 5개국과 K실크로드
협력 구상 구체화” /사진 뉴스스
▲트럼프, 경합주 3곳 막판연설…“백악
관 안 떠났어야”



패션업계
대만시장 주목
팝업 등 본격진출
L2



Life

현대차
이동형 수소충전소
국내 최초 운영
L4



건강한 금융 선도... 창립 70주년 맞아 'ESG 가치' 새기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건강한 금융투자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초부터 ESG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ESG 위원회'를 신설해 ESG 전략 수립, 정책 결정 및 현안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ESG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ESG 전략 TF'를 운영하며 ESG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 'ESG 금융'부터 '디지털화'까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월에 ESG 경영전략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된 이번 보고서는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윤리경영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본 정보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자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ESG 관련 활동을 다루고 있다.

송경재 전략기획실장은 "ESG 경영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담아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면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기점으로 ESG 경영을 본격화하여 ESG 선도기업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은 ESG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ESG 금융', '디지털화(Digitization)',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기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민간 주도형 R&D 지원 사업(스케일업팁스) 운용사 선정, ESG 리서치 보고서 발간, 디지털 업무 창구 구축, 지역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지원, 걷기 챌린지 등 ESG 실천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임직원 대상 ESG 교육', 'ESG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ESG 경영을 위한 제도, 문화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보고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임직원들이 기획 단계부터 원고 작성, 디자인 작업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ESG 경영전략 수립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 사회공헌 활동 확대로 '따뜻한 사회 만들기' 실천

유진투자증권은 꾸준히 이어오던 사회공헌 활동도 한층 강화했다. 유창수 대표이사 출범 이후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방침으로 삼고 '상암동 하늘공원 유진의 숲 조성', '매칭펀드를 통한 보육원 후원', '임직원 1인 2봉사활동', '어린이집 및 학습재단후원',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유진투자증권이 지난 5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진투자증권 임직원이 기부한 나무를 직접 심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ESG 위원회 신설 등 ESG 역량 강화 나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금융 등 담아

숲 조성, 보육원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 강화 문화예술 지원 '유진 아트체크인' 프로젝트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작품으로 달력 제작 기업 전반 걸쳐 '함께 가는 금융' 실현 박차

지난해부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대를 맞아 임직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봉사활동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율선택형 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새로운 사회공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임직원들은 ▲유진의 숲 가꾸기 ▲휴리스 배식 ▲지역아동센터 배식 중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경영방침을 되새기고,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릴레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립준비청년 독립 지원과 연계한 '임직원 2억보 걷기 챌린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큐브 제작 봉사활동',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희망가구 기부' 활동 등이다.

유진투자증권은 국민들의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도 선보였다. 서울시립미술관과 협력해 진행한 '유진 아트체크인'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프로젝트는 미술의 저변 확대와 대중의 전시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지원 활동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유진 아트체크인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올 9월에도 '유진 아트체크인 시즌2'를 진행, 다시 한번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서울시립미술관과 함께 '유진 아트체크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시즌1



유진투자증권이 발달장애인 직원이 직접 그린 유화 작품을 활용해 2024년 탁상용 달력을 제작했다.

의 경우, 참여자의 97%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90%가 미술의 저변 확대라는 취지를 잘 살렸다고 답변하는 등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언급했다.

◆ 사회 형평적 채용 활동 추진

유진투자증권은 사회 형평적 채용 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1년 소셜 스타트업 '키무스튜디오'와 협업,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9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 디자이너들은 회사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신입사원 웰컴(Welcome) 굿즈, 골프 굿즈 패키지, 파트너 금융 키트 디자인 등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 초에는 발달장애인 디자이너가 직접 그린 유화 작품을 바탕으로 탁상용 달력을 제작해, 이를 영업점 방문 고객들에게 배포하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여는 202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나눔국민대상 장관상 수상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인증하는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 Healthy한 금융인 되기 캠페인, 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 환경 구축 등 '함께 가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비즈니스, 조직문화, 업무 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임직원이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더 많은 ESG 활동을 펼쳐 나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손흥민·김봉수·이태석 합류한 축구대표팀... 중동서 5·6차전 치른다 /사진 뉴시스
▲두산, 이정훈 2군 감독과 결별...안승환·서예일 은퇴

▲3대3 농구 '2024 코리아 올팍투어' 파이널, 오는 8일 진행
▲'이을용 아들' 이태석, 생애 첫 태극마크...부자 국가대표 탄생



▲제12회 교보문고 스토리대상에 김혜솔 '노간주나무' /사진 뉴시스
▲서양화가 故 조영동, 충북문화관·성신여대서 회고전